

희망모을 open 기념세미나

# 시민권력시대,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2018. 7. 12. 오후 2시 희망모을



희망모을 open 기념세미나

**시민권력시대,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 발행처: (재)희망제작소
- 발행일: 2017년7월12일
- 주 소: 03978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희망제작소
- 문 의: 희망제작소 경영기획실
  - 전화: 02-6395-1419
  - 팩스: 02-3210-0126
  - 홈페이지: [www.makehope.org](http://www.makehope.org)

인사말

## 절실하게 묻지만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는 희망제작소

희망모을 개관기념 토론회에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한 발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희망제작소를 만들고 지켜온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희망모을이 만들어지도록, 희망제작소가 부족하지만 필요한 일을 감당하도록 응원하고 후원해주신 분들의 고마움 잊지 않겠습니다.

희망모을은 희망제작소가 새로 마련한 시민연구공간의 이름입니다.

‘경계가 없는 어울림공동체’를 뜻하는 우리말 ‘모을’과 희망을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경계가 없는 어울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다짐을 담기도 했습니다.

경계가 없는 어울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에서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꿈꿉니다. 그래서 개관기념 세미나의 주제를 “시민권력 시대, 모든 시민이 연구자”로 잡았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은 시민 개개인이 모두 주권자이고, 자기 자신을 대변하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의 뿌리까지 흔들은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구경하는 ‘관객 민주주의’로는 그들의 견고한 뿌리를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산더미라는 것을 알게 해 준 ‘어떤’ 시민이 곳곳에 있습니다. 법원 불법 사찰 피해자들의 증언, 서지현 검사의 용감한 외

침, 현직 검사의 수사 외압 폭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민들의 외침이 넘칩니다.

체도가 보장한 청원과 기성 언론을 통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디지털로 연결된 ‘새로운 시민’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수많은 시민이 공감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기득권의 벽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장정에 나선 한 사람의 시민을 다른 시민들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의 부조리를 바꾸려 도전하는 시민이 있기에 우리는 희망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개관세미나를 통해 성찰하려합니다. 연구자와 운동가가 앞장 서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신의 문제와 씨름하고 실천 중인 시민과 함께하는 길이 대안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유류 피해를 당한 태안의 한 시민이 전 세계 유류 피해 회복과정을 조사하면서 지역공동체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고자 나선 평범한 시민이 정부도 못 하는 수탈당한 문화재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시민연구자들, 스스로 대안이 되어 고민하고 도전하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희망제작소가 되는 길을 탐색해보려 합니다.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절실한 필요가 담긴 연구를 연결하고 거드는 길을 꿈꿉니다.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열어갈 방법, 전략을 탐색하고자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어떤 일상의 단면을 선택해서, 골똘히 생각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고 다시 정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시민의 일상의 문제와 그 근본의 이치를 시민과 함께 깨우쳐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안, 불공정과 불통을 찾아내고, 그 원인과 대안을 천착하는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큰뜻을 세우고 멀리 바라(大志遠望)보지만, 절실하게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切問近思)하는 희망제작소, 편안함을 찾지않고(無逸) 시민 속에서 골똘이 생각해서 이치를 깨우치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희망제작소가 되도록 늘 지혜를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2018. 7.12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 목 차

## 인 사 말

“절실하게 묻지만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는 희망제작소”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 프로그램

## 주제발표

“촛불혁명 이후 시민의식의 성장과 시민참여의 주요 흐름과 동향”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정치학회 회장 ..... 1

“시민연구 플랫폼으로서 민간싱크탱크의 역할”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 ..... 25

## 지정토론

“영국 램베스구 사례를 통해 본 시민학습지원 및 시민연구사례”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대표, 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 37

“청년연구자가 바라는 희망제작소의 역할”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 ..... 63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고파다 〈들파〉 대표 ..... 73

## 희망모을 open 기념세미나 | 시민권력시대,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 프로그램

#### □ 행사개요

- 일시: 2018년 7월 12일 오후2시
- 장소: 희망제작소 희망모을
- 주최: (재)희망제작소

#### □ 프로그램

- 좌 장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
- 주제발표 (50분)
  - “촛불혁명 이후 시민의식의 성장과 시민참여의 주요 흐름과 동향”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정치학회장
  - “시민연구 플랫폼으로서 민간싱크탱크의 역할”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
- 지정토론 (50분)
  - “영국 램베스구 사례를 통해 본 시민학습지원 및 시민연구사례”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대표, 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 “청년연구자가 바라는 희망제작소의 역할”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
  -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고파다 <들파> 대표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20분)

---

## 주제발표

“촛불혁명 이후 시민의식의 성장과 시민참여의 주요 흐름과 동향”

---

-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정치학회장



# 촛불혁명 이후 시민의식의 성장과 시민참여의 주요 흐름과 동향

희망제작소 시민연구공간 오픈 세미나 발표자료 2018. 7. 12.  
김의영(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사회과학연구원장, 한국정치학회장)

## 목차

- I. 촛불시민혁명의 의미
- II. 시민정치와 거버넌스 패러다임
- III. 성공요인 생각해보기: 시민 主意主義
- IV. 학계의 역할: 시민정치 교육연구실천 프로젝트 外

# I. 촛불시민혁명의 의미: *정당정치 vs. 시민정치·거버넌스의 정치*



## 1. 전통적인 정당정치 시각

- 촛불시위는 제도권 정치를 우회해 이뤄지는 **거리의 정치**
- 민주정치의 작동에 있어 선거를 통해 집권한 뒤 정부를 구성하고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집약, 조정해 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정당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이를 시민정치가 대신할 수 없음.
- 자칫 제도와 절차를 우회하여 이루어지는 포퓰리즘 혹은 동원의 정치로 전락할 수도 있으며, 운동정치의 과잉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 **민주적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 정당정치 시각 1

문창극, "제도와 운동의 대결," 중앙일보 2011. 10. 11

**나는 운동보다 제도를 믿는다.** 운동은 그 성격상 언제나 일시적이다. 정당은 지속성을 갖지만 운동은 이것이 없다... 운동에는 책임감이 없다. 불만에 불을 지피기는 하지만 뒷수습에는 관심이 없다. 운동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정당은 그 역사와 구성 인물을 통해 향후 정책을 알 수 있다. 다중의 일시적 모임에서 출발한 운동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정체성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우리 정치사에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우리 정당제도가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나라 운명을 **들불 같은 운동**에 그때그때 맡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제도는 운동이 일어날 때 이를 지혜롭게 흡수하면 한 단계 발전하기 때문이다.

## 정당정치 시각 2

"최장집 교수와의 인터뷰" 한국일보 2012. 01. 25

**난 촛불시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굉장히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했고, 의회도 힘이 없고, 야당도 견제력을 상실했다. 이럴 때 시위를 통해 반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운동이 항시적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 운동이 필요한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과 그 체제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다른 문제다. **그건 정당이 할 수밖에 없다. 운동은 할 수 없는 부분이다.**

## 2. 새로운 시민정치·거버넌스 시각

- 뉴미디어의 등장과 비판적 시민(critical citizen)의 참여 등 시대적 변화로 인하여 정치적 대표와 의사결정을 더 이상 정당이 독점할 수 없게 됨.
- 기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직접행동으로 표출되고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상승
- 촛불시위는 일탈적, 주변적, 반제도적 현상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며 잘 조직된 행동으로서 민주주의의 과잉(excess of democracy)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부활(renewal of democracy)을 보여주고 있는 것
- 취약한 대의정치와 왜곡된 정당정치를 보완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적 시민정치가 필요하며 '시민정치 대 정당정치'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양자의 상승적 관계에 기초한 거버넌스의 정치를 모색해야 함.

## 시민정치/거버넌스 시각 1

백낙청, "거버넌스에 관하여," 창비주간논평 2008. 12. 30

시민사회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거버넌스의 일부를 담당할 만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함양하면서, 정당, 사회단체, 노동조합, 종교계 등이 연대하여 입법부의 활성화,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건전성 등을 확보할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관건은 '촛불소녀'로 상징되는 발랄함과 유쾌함이 한층 절박해진 군중과의 결합을 통해 또 한 번 새로운 시위문화를 창출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중의 토론과 합의를 이어받아 언론과 여러 전문집단, 권익집단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정당들과 함께 건설적으로 국정에 기여하는 - 단순한 시위참여가 아니라 국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 길을 마련해야 한다.

## 시민정치/거버넌스 시각 2

정성희, "시민 권력과 거버넌스," 동아일보 2008. 6. 25

투표율 하락은 정치 불신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왜 공휴일에 빈둥빈둥 놀면서 투표장행(行)은 마다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거리시위엔 나서는 것일까? 정치가 국민생활과 따로 논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촛불시위는 이명박 정부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이란 명분으로 거리를 해매는데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가, 시민의 불신 대상에 정치권력인 야당 또한 포함돼 있는 까닭이다. 현대의 시민은 통치대상으로 머무르기를 거부한다. 4년 혹은 5년 만에 한 번 하는 투표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거리에서, 학교에서, 마을에서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그러자면 정부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수밖에 없다. 거버넌스(governance)를 상시화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대의제의 근간을 흔들 정도여서는 안 된다.... 역설적이지만 촛불을 끄려면 촛불을 통치과정으로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 시민정치/거버넌스 시각 3

김의영, "촛불집회, 일탈이냐 일상이냐" 중앙일보 2004. 03. 22

촛불시위는 제도권 정치를 우회해 이뤄지는 거리의 정치로서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현상으로 보일 수 있다...[그러나]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저항의 정치'가 실상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투표와 정당가입 등 전통적인 정치참여가 퇴조하고 있는 대신 시위, 인터넷 네트워킹, 보이콧 등 직접행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보편화하고 있으며 저항의 정치에 참여하는 계층도 더 이상 젊은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관리 직종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등 정치참여의 주류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촛불집회는 취약한 대의정치와 왜곡된 정당정치로 대표되는 현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참여민주주의의 정당한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는 양자가 견제와 협력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상호 상승적인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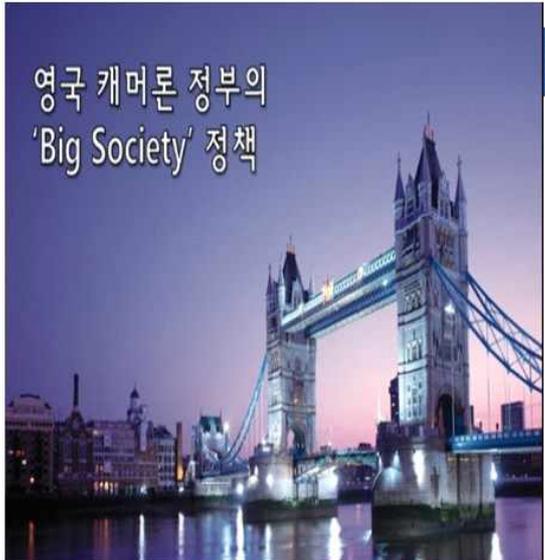
## II. 시민정치와 거버넌스의 시대: 시민정치/거버넌스 패러다임

### 글로벌 담론: UN SDGs

“모든 수준에서의 반응적이고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대표성이 있는 의사결정과정 보장 (SDG 16.7)”



## 영국과 미국의 실험



영국 캐머론 정부의 'Big Society' 정책



the WHITE HOUSE PRESIDENT BARACK OBAMA

Office of Social Innovation and Civic Participation

The bottom line is clear: Solutions to America's challenges are being developed every day at the grass roots – and government shouldn't be supplanting those efforts, it should be supporting those efforts.

– President Barack Obama, June 30, 2009

## 한국의 다층적 실험

- 참여정부로부터 정부 3.0까지
- 서울시부터 제주도까지 광역 수준의 실험
- 성북구의 마을민주주의 실험
- 서울 및 전국 풀뿌리 실험
- 행정부를 넘어: 시민네트워크 정당, 시민배심원제 등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관악구의 시민정치

동네 안의 시민정치

동네 안의 시민경제

동네 안의 시민경제

## 문재인 정부의 실험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비서실 조직 개편(사회혁신수석), 광화문 1번가, 공론화위원회, 국민청원, 지방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개헌안 등

■ 국가비전 - 5대 국정목표 - 20대 국정전략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미래에 걸맞는 경제	내 상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20대 국정전략	1. 국민주권의 존엄 실현 2. 소중으로 통하는 정의로운 대통령 3.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4.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 소속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2.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3. 시민과 생산성을 위한 민생경제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1.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2.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3.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4.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5.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1.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2. 골고루 살리는 균형발전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2.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3.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100대 국정과제 (1487개 실천과제)	15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26개 과제 (129개 실천과제)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	11개 과제 (53개 실천과제)	16개 과제 (71개 실천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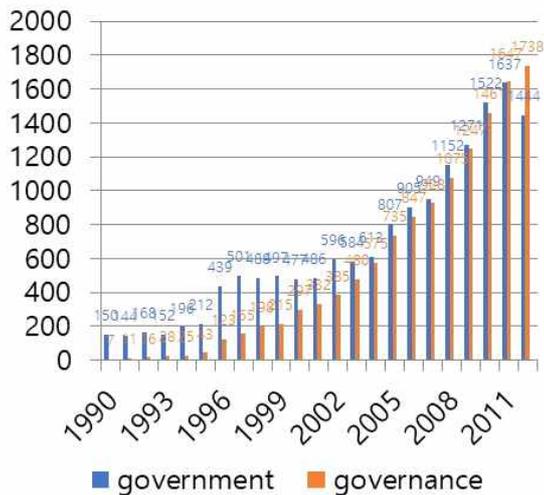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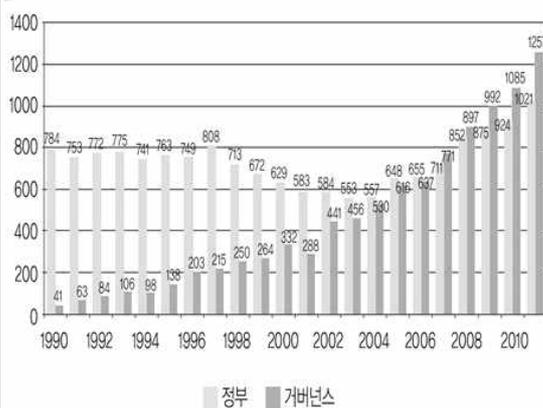
구분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국민의 성격	근대적 국민	주권자 국민
국민-국가 관계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민	국가를 형성하는 국민
국민주권의 특성	대표되는 국민주권	개개인의 국민주권
권력의 성격	위임된 권력	생성적 권력
참여방식	제도화된 국민참여	일상적인 국민주권 행사
주권 실현방식	참정권, 투표권	국민제안, 국민숙의, 국민결정
역사적 사건	1987년 6월항쟁	2016년 촛불집회
사건의 의미	국민주권의 통로·제도 구축	아래로부터의 국민주권 표출
민주주의 형태	제도 민주주의	일상 민주주의
정치-시민 관계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괴리	제도정치와 시민사회의 연계
시민참여 기반	조직화된 시민사회 기반	자발적 개인들의 네트워크

## 서구 학계의 연구 트렌드

ISI-Web of Knowledge, SSCI & SCOPUS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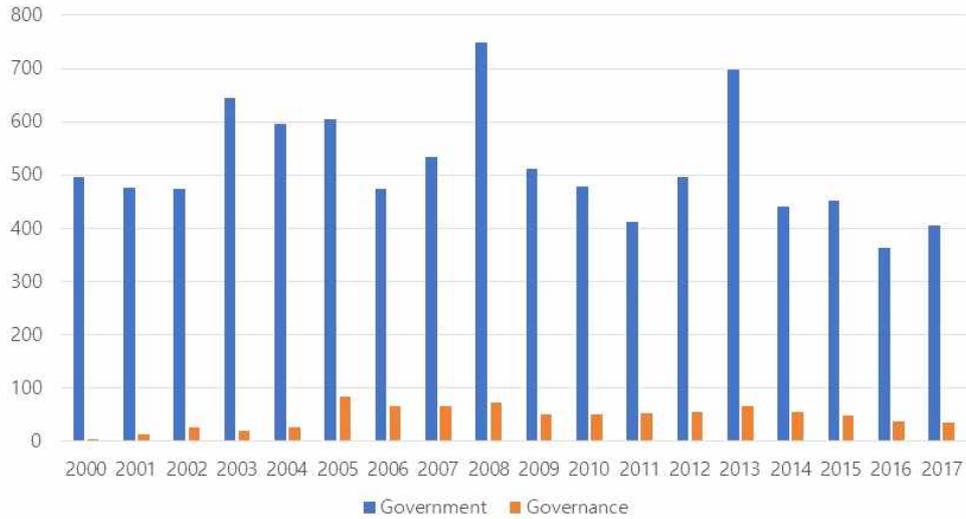
도표 1.1 서구 사회과학계의 '거버넌스' 논문과 '정부' 논문 발표 수



출처: ISI-Web of Knowledge,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1990-2012.

## 한국 학계의 연구 트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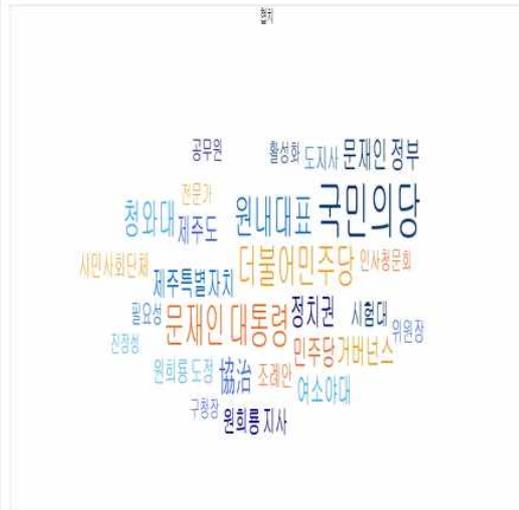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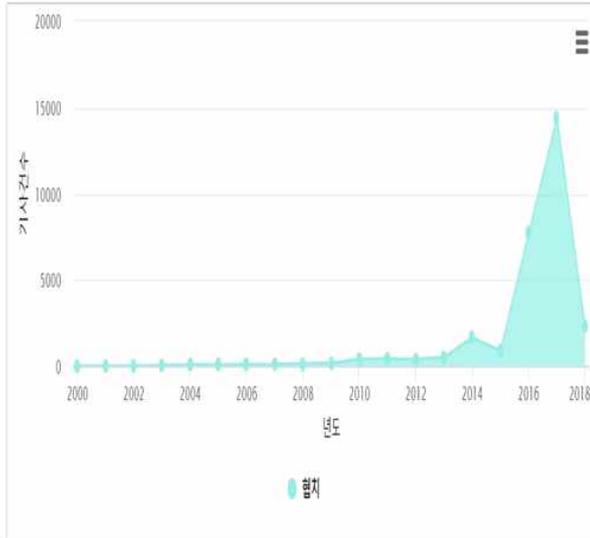
Korean Information Service System



## 신문 기사 제목 검색 결과: 거버넌스 (KINDS News Big Data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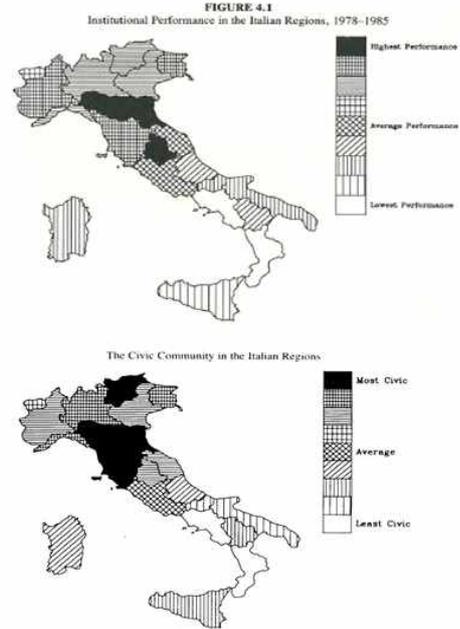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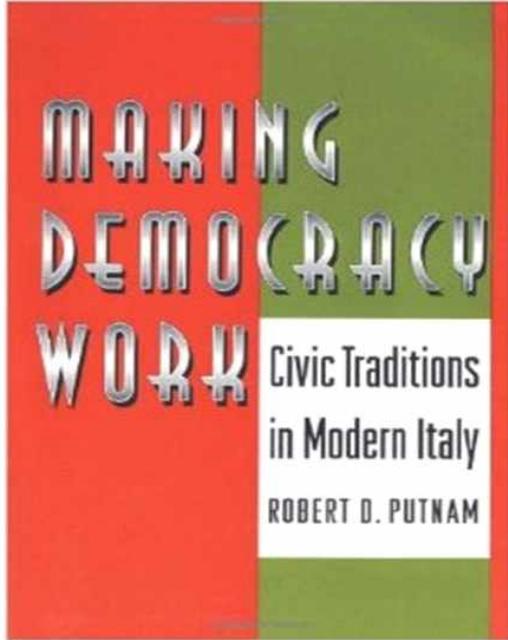


## Cf. 신문 기사 제목 검색 결과: 협치(協治) (KINDS News Big Data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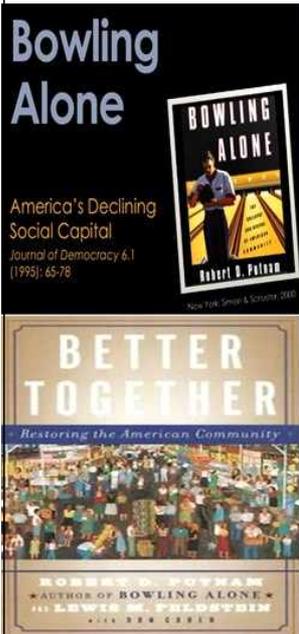


**III. 시민정치/거버넌스  
성공요인 생각해보기!**  
**시민 주의주의(主意主義)!**

# 1. 사회적 자본: 이태리 사례 (Robert Putnam)



# 사회적 자본: 미국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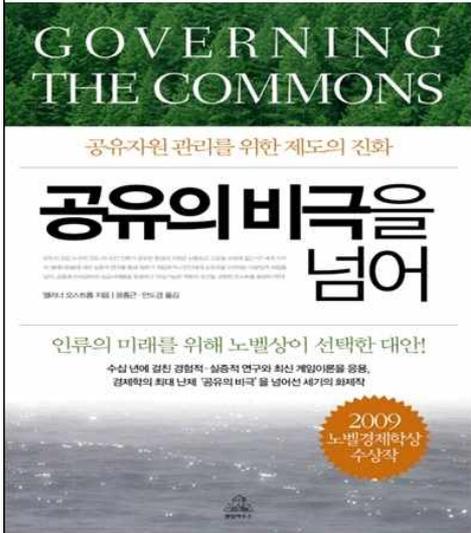
**bettertogether**  
CONNECT WITH OTHERS. BUILD TRUST. GET INVOLVED.

HOME | BASIC | BOOK | REPORT | WHAT CAN YOU DO | SAGUARO | CONTACT US

**what to do: 150 THINGS YOU CAN DO TO BUILD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is built through hundreds of little and big actions we take every day. We've gotten you started with a list of nearly 150 ideas, drawn from suggestions made by many people and groups. Try some of these or try your own. We need to grow this list. If you have other ideas, email us. [A printer-friendly version is available here.]

1. Organize a social gathering to welcome a new neighbor
2. Attend town meetings
3. Register to vote and vote
4. Support local merchants
5. Volunteer your special skills to an organization
6. Donate blood (with a friend!)
7. Start a front-yard/community garden
8. Mentor someone of a different ethnic or religious group
9. Surprise a new neighbor by making a favorite dinner--and include the recipe
10. Tape record your parents' earliest recollections and share them with your children
11. Plan a vacation with friends or family
12. Avoid gossip
13. Help fix someone's flat tire
14. Organize or participate in a sports league
15. Join a gardening club
16. Attend home parties when invited
17. Become an organ donor or blood marrow donor.
18. Attend your children's athletic contests, plays and recitals
19. Get to know your children's teachers
75. Volunteer at the library
76. Form or join a bowling team
77. Return a lost wallet or appointment book
78. Use public transportation and start talking with those you regularly see
79. Ask neighbors for help and reciprocate
80. Go to a local folk or crafts festival
81. Call an old friend
82. Sign up for a class and meet your classmates
83. Accept or extend an invitation
84. Talk to your kids or parents about their day
85. Say hello to strangers
86. Log off and go to the park
87. Ask a new person to join a group for a dinner or an evening
88. Host a pot luck meal or participate in them
89. Volunteer to drive someone
90. Say hello when you spot an acquaintance in a store
91. Host a movie night
92. Exercise together or take walks with friends or family
93. Assist with or create your town or neighborhood's newsletter
94. Organize a neighborhood pick-up - with lawn games

## 2. 자치제도 (Elinor Ostrom)



<https://www.youtube.com/watch?v=GuYLWLJoiqY>  
<https://www.ubs.com/microsites/nobel-perspectives/en/elinor-ostrom.html>

공유지의 비극을 넘어선 공동체의 특징	
명확한 경계	공유자원의 범위와 그 사용자가 분명해야 한다
규칙의 부합성	쓸 수 있는 자원의 양 등을 정한 규칙은 현지 조건에 맞아야 한다
집합적 선택장치	규칙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규칙 수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감시활동	공유 자원의 현황은 적극적으로 감시되어야 하고, 단속 요원은 사용자 가운데서 선출되어야 한다
점증적 제재	규칙을 위반한 사용자는 잘못의 경중(輕重)에 따라 차례로 강도가 높아지는 점증적 제재를 받는다
갈등 해결 장치	사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수준의 갈등 해결장치가 있으며, 당사자는 이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의 자치권 보장	사용자들이 스스로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권리가 국가 같은 외부 권위체에 의해 도전받지 않아야 한다.

자료: 《공유의 비극을 넘어》

**Elinor Ostrom**



**Born:** August 7, 1933  
**Died:** June 12, 2012  
**Nationality:** American  
**Institution:**  
 •B.A. (with honors), Political Science, UCLA, 1954  
 •M.A., Political Science, UCLA, 1962  
 •Ph.D., Political Science, UCLA, 1965  
**Field:**  
 •Public Economics  
 •Public Choice Theory  
**Contribution:**  
 •Governing the Commons  
**Awards:**  
 •2009 Nobel Memorial Prize  
 •2004 John J. Carty Award  
 •2001 US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electee

## 성북구 사례: '동행(同幸)' 아파트 사례와 모의 시민의회 제도



“함께 행복하자”

- 2014년 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 사태
- 최저임금 100% 적용: 입주인 ↔ 경비원

### '갑질' 대신 '상생'...성북구, '동행(同幸)조례' 제정

정대연 기자 hean@kyunghyong.com

계약서에 '갑질' 대신 '동행(同幸)'을 사용해 상생의 가치를 확산시켜온 서울 성북구가 '동행(同幸)조례'를 만들었다. 성북구는 3일 '동행'을 구정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동행' 활성화 및 확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함께 행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동행(同幸)은 성북구 내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의 임금인상과 고용보장을 추진하며 시작한 상생아파트의 브랜드명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행(同幸)계약서'를 작성해 화제가 됐다.

조례는 동행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동행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동행 활성화를 위한 교육, 주택단지 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 민관 협력체계 구성,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동행계약서'와 관련해, 각종 계



### 3. 참여 거버넌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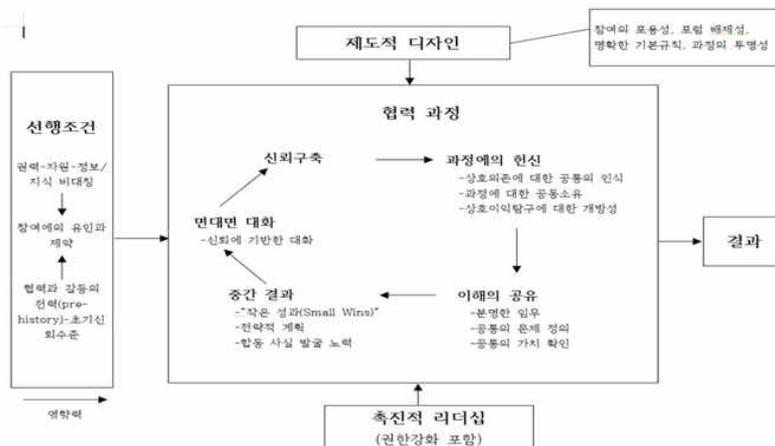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Fung & Wright)



- 3가지 원칙(principles)
  1. 실용성(practical orientation)
  2. 상향식 참여(bottom-up participation)
  3. 심의를 통한 해결(deliberative solution generation)
- 3가지 디자인 속성(design properties)
  1. 권력이양(devolution)
  2. 정부의 감독과 조정 역할(centralized supervision and coordination)
  3. 국가 내부 개혁 전략(state centered, not voluntaristic)
- 가능조건(enabling conditions): 특히 기득권에 대한 견제세력과 권력 균형
- 목적(institutional objectives)
  1. 효과적 문제해결(effective problem solving)
  2. 평등(equity)
  3. 참여의 질(broad and deep participation)
- 사례: 포르투 알레그레 참여예산제, 시카고 교육 및 경찰 개혁

### 4.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Ansell and Gash)

<그림-1>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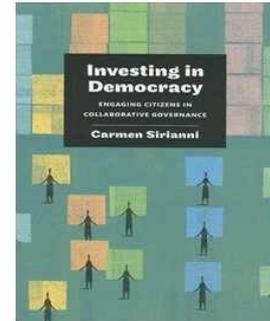


출처: Ansell and Gash(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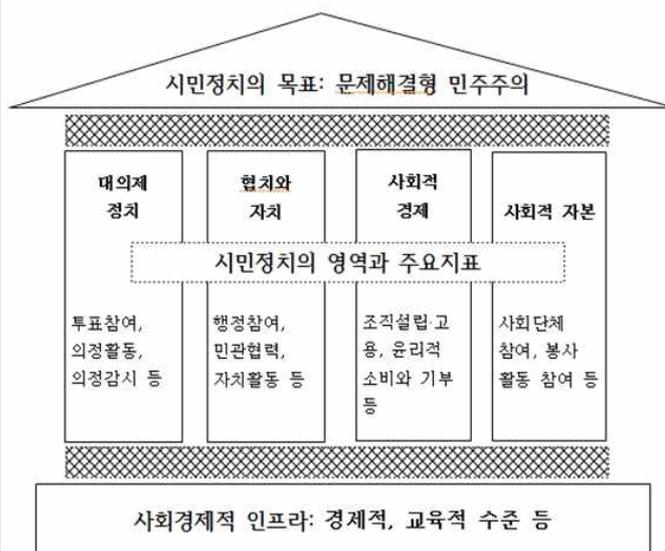
## 5. Civic Enabler로서의 정부의 역할 (Sirianni)

### 8 가지 원칙

1. 공공재 공동 생산(coproduce public goods)
2. 공동체 자산 동원(mobilize community assets)
3. 전문 지식 공유(share professional expertise)
4. 공공 심의(ensure public deliberation)
5. 지속적 파트너십 구축(promote sustainable partnership)
6.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전략적 활용(build fields and governance networks strategically)
7. 참여 문화 확산(transform institutional culture)
8. 상호 책임성 확보(ensure reciprocal accountability)



## 6. 지표 분석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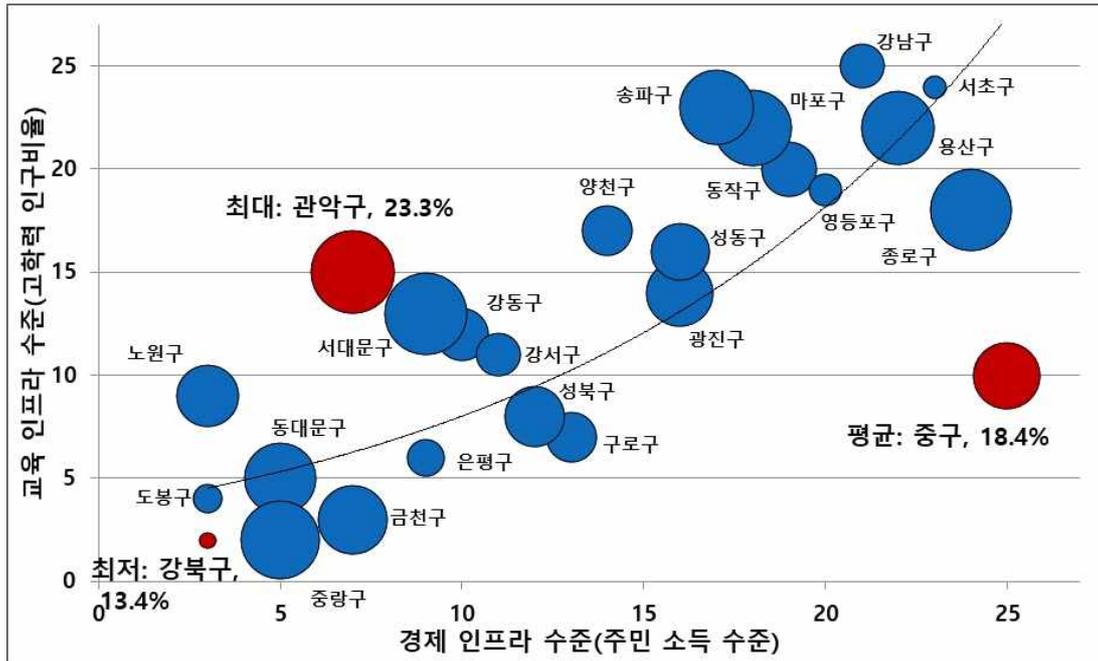


#### \*각 지표의 내용과 산출 근거

1. 대의제 정치 관련 지표
  - 투표율(2014년 지방선거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의정 활동(2014년 5월에서 2017년 5월까지 조례, 규칙 등의 총 제정 건 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회 개방도(개회 구의회의 정보 공개 수준, 입법예고 제도 운영 등, 2016년 권익국민연대 조사결과)
2. 협치와 자치 관련 지표
  - 공공기관 청렴도(2012-2016년 평균 값,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2012-2016년 평균 값, 서울시, "서울서베이")
  - 시민의 행정 참여율(2015-2016년 평균 값, 지난 1년 동안 민원제안 및 제기, 정치사회적 의견달기, 서울시 정책관련 시업 참여, 정책제안의 경험 유무, 서울시, "서울서베이")
  - 마을공동체 참여 의향(2015년에 실시된 조사 결과, 서울시, "서울서베이")
  - 주민참여예산제도 인지도(2014년에 실시된 조사 결과, 서울시, "서울서베이")
3. 사회적경제 관련 지표
  - 사회적경제 인지도(2014-2015년에 실시된 조사결과와 평균 값, 서울시, "서울서베이")
  - 사회적경제 사업체 수 및 고용자 수(2015년 말 기준,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비생협 등 기업체 수 및 고용자 수,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사 결과)
  - 사회적서비스(비우체) 제공기관(2016년 말 기준, 노인·장애인·아동 돌봄이나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우체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나 기관의 총 수, 프로그램 기준, 보건복지부 자료)
4. 사회적자본 관련 지표
  - 비영리민간단체 수(2016년 말 서울시 등목의 단체 수, 등록 주소 기준, 행정자치부 자료)
  - 사회단체 참여율(2012-2016년 평균 값, 친목회,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한 가입 여부, 서울시, "서울서베이")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2012-2016년 평균 값,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서울시, "서울서베이")
  - 기부 경험율(2012-2016년 평균 값, 지난 1년 동안의 기부 실시 여부, 서울시, "서울서베이")
  - 집회와 시위 참여율(2015-2016년 평균 값, 지난 1년 동안 집회와 시위 참여 여부, 서울시, "서울서베이")
  - 약자에 대한 의식(2012-2016년 평균 값,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관용의 수준, 서울시, "서울서베이")
  - 이웃 사람들에 대한 신뢰(2012-2016년 평균 값, 서울시, "서울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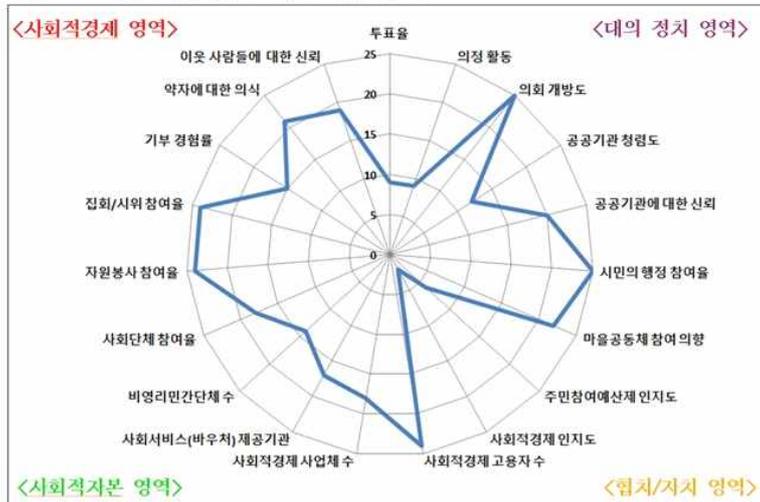
## 경제·교육 인프라와 시민정치의 상관관계?

● 거품 크기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율(2011-2015년 평균)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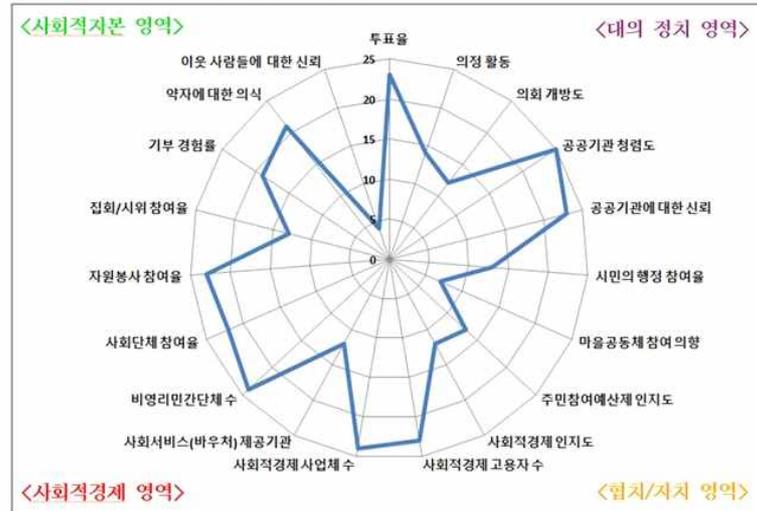
## 관악구

<그림 1-00> 종합적 지표 현황(2012년-2016년): 관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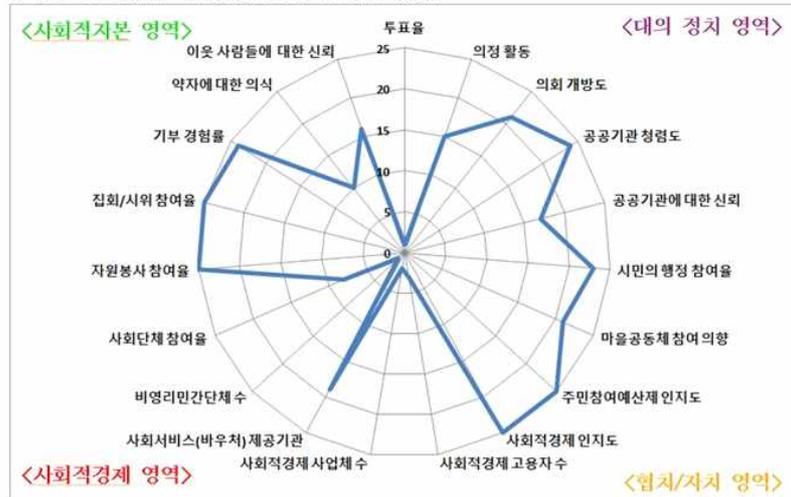
# 마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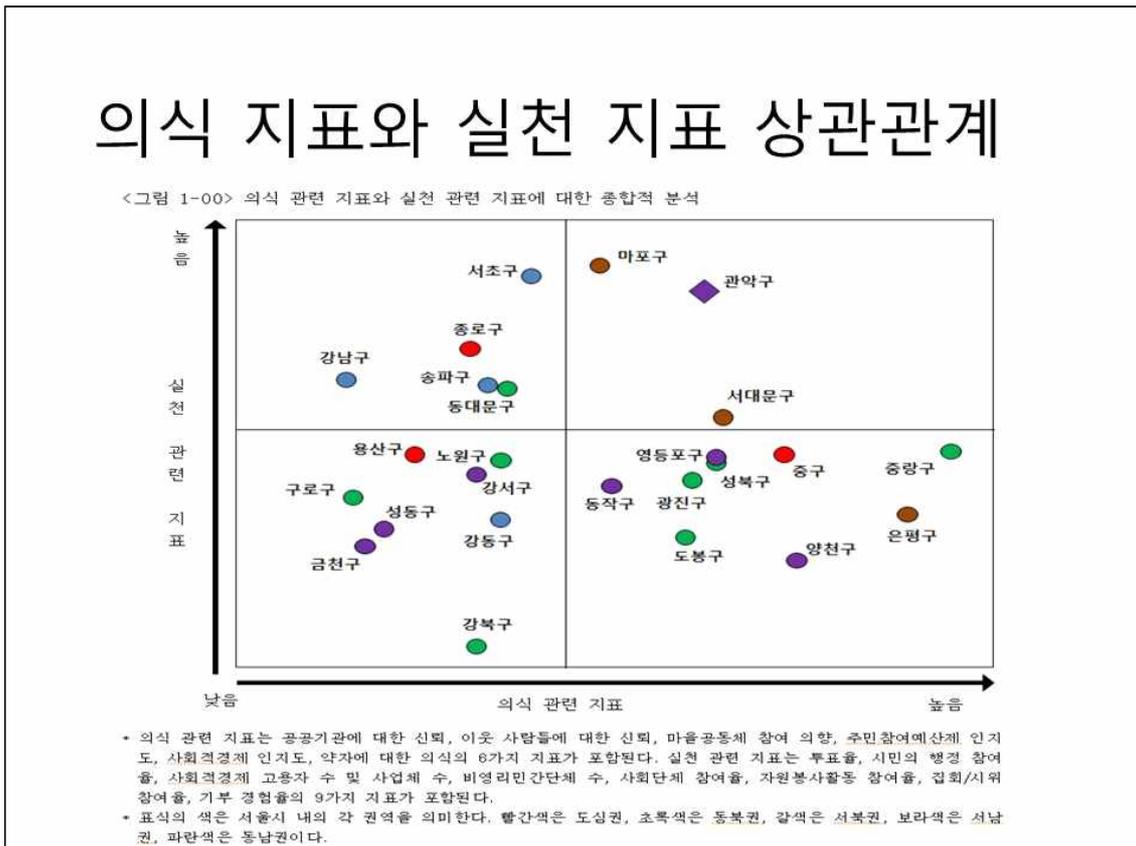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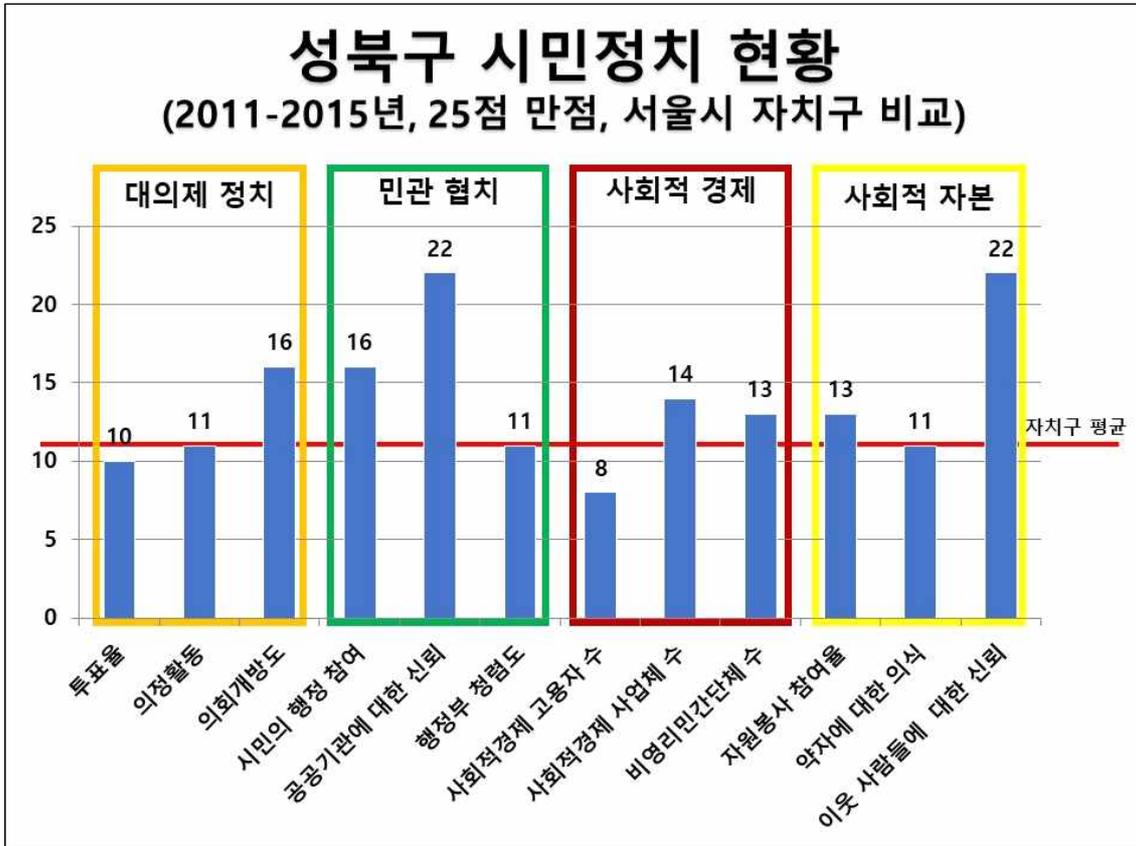
<그림 1-00> 종합적 지표 현황(2012년-2016년): 마포구



# 종량구

<그림 1-00> 종합적 지표 현황(2012년-2016년): 종량구





## 7. 사례 분석해보기

〈표 1〉 굿 거버넌스의 목표

목표	평가기준
참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li> <li>참여의 양과 질(단순참여와 의견개진·presence and voice, 개방성, 포용성, 대표성, 형평성 등)의 문제</li> <li>로컬 거버넌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li> <li>로컬 거버넌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비례대표성(남녀노소, 교육수준, 빈부, 거주기간 등)</li> <li>로컬 거버넌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voice)와 영향력에 있어서의 형평성</li> </ul>
분권화 (devol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들이 어느 정도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li> <li>주민들의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의 문제</li> <li>주민들의 참여가 둘러리나 명분축적, 책임회피에 불과한지 않은가?</li> <li>주민들에게 아젠다 형성 권한이 있는가?</li> <li>로컬 거버넌스 네트워크에 관여하는 결사체 내부의 민주적 반응성(즉 주민 지도자 혹은 대표들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li> </ul>
책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들이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li> <li>책임소재의 문제</li> <li>로컬 거버넌스 네트워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li> <li>로컬 거버넌스 네트워크에 관여하는 결사체 내부의 민주적 책임성(즉 주민 지도자 및 대표들에 대하여 일반 주민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의 문제)</li> </ul>
효율성 및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료제와 시장기제와 비교하여 더욱 효율적인 방식인가?</li> <li>현안 해결 외에 어떤 다른 효과가 있는가?</li> <li>경험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가?(예: 수질개선정도)</li> <li>주민-정부 간 갈등을 해소하고 현안을 해결했는가?</li> <li>현안해결 외에 다른 상대적으로 비가시적인 파급효과 있었나?(예: 정치적 효능감 증진, 학습효과, 시민사회의 역량배양, 정부의 역량배양 및 조직문화 개혁, 일체성 및 정체성 형성, 정통성 및 신뢰성 제고 등)</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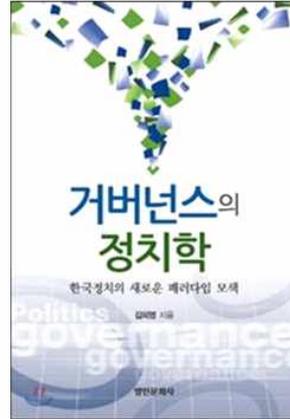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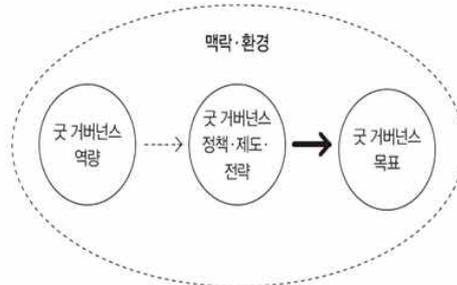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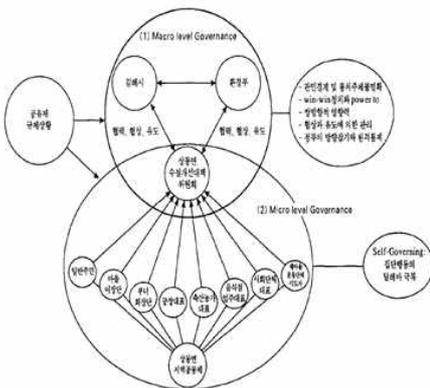


도표 3.1 굿 거버넌스 분석틀



## 대포천 수질개선 거버넌스 사례 예시

(그림 1): 연구의 분석모형: Multi-level governance



〈표 6〉 로컬 굿 거버넌스 분석틀에 의한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 평가

굿 거버넌스 목표	행위자	굿 거버넌스 정책·제도·전략
참여성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동면 수질개선대책위원회 중심의 주민 참여</li> <li>회원자격을 모든 주민에게 부여</li> <li>이장단회의, 새마을지도자회의, 부녀회의의 등 위원회 중심의 조직화를 통한 참여의 대표성 제고</li> <li>현장학습, 견학과 홍보활동 등을 통한 참여 유도</li> </ul>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의 지고무(환경부, 김혜시)</li> <li>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보 및 물적, 인적 자원 제공(김혜시)</li> </ul>
분권화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질관리를 위한 운영규칙들을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제정</li> <li>수질협약을 정부에 건의하고 설득하는 등 주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자율적으로 실행함</li> <li>투표 같은 선택행위 대신 만장일치에 의한 의사결정</li> </ul>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들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권한이양</li> </ul>
책임성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감시와 제재(하천감시단 자원봉사자와 유급상용감시단 활용)</li> <li>대책위원회 활동비용을 가구당 자체적으로 모금</li> </ul>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질개선 목표 및 좌표의 설정</li> <li>수질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는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방식 채택</li> </ul>
효율성·효과성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적인 노력으로 대포천을 1급수 하천으로 개선</li> <li>대포천을 둘러싼 정부-주민 간 갈등 해소 (수계특별법 제정반대운동에서 수질개선운동으로의 전환)</li> </ul>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유재의 효과적 관리</li> <li>대포천을 둘러싼 정부-주민 간 갈등 해소</li> <li>정책의 거래비용 감소</li> </ul>
효과성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자본(신뢰, 네트워크 규범) 배양</li> </ul>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주민 간 대립 및 갈등 구조 해소하고 협력 및 상생의 구조로 전환 (정부 측에서 본 사회적 자본 배양)</li> </ul>

## 8.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시민정치 분과 제안



### • 광화문 1번가 현상이 시민 민주주의로 이어지려면

1. 정부가 좋은 퍼실리테이터가 되어야 한다 => 좋은 질문을 던지고 숙의 유도
2. 시민의 제안을 뒷받침할 전문가들의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 전문적 지식과 정교한 방법론 제공
3. 피드백 시스템을 만들자 => 효능감 제고
4.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자
5. 상시 기구를 만들자



## IV. 학계의 역할

**시민정치 교육연구실천 프로젝트에서  
전국 사회혁신 교육연구실천 프로젝트로**

## 서울대 정치학 전공 파일럿 수업(2015~2018)

▶ 5번의 지역 기반 시민정치/경제 수업을 수행

- 2015년 1학기 “서울의 시민정치” 수업
- 2016년 1학기 “전국의 시민경제” 수업
- 2016년 2학기 “관악구의 시민정치” 수업
- 2017년 1학기 “시흥시의 시민경제” 수업
- 2018년 1학기 “성북구의 시민정치” 수업



주민 대상 '소셜픽션 워크숍'을 통해 미래 비전 창조



현장활동을 통해 대화와 참여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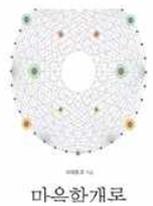
시장, 구청장 인터뷰를 통한 정책 점검



시민활동가, 공무원, 의원들과 함께 지역혁신

## 시민정치 교육연구실천 프로젝트 결과물

1. 단행본: <관악구의 시민정치> 등 7권
2. 학술 논문: <한국정치학회보> 등 7편
3. 학생 학회 발표 논문: 한국정치학회, 세계정치학회 (IPSA), 세계정치학학생회(IAPSS) 등
4. 신문기사: 중앙일보 '동네 안의 시민정치' 기획기사 시리즈(2015), 한겨레 서울 & 기획기사 시리즈(2016) 등
5. 실천 프로젝트: '관악 시민의 밤' 외
6. 동영상: 연세대 정의과 마을학 개론 <Link>



학생 연구결과 발표 및 민-관-학 협치 토론회

### 관악구 시민 정치 워크숍

### 관악 시민의 밤

- 일시 : 2017년 05월 26일(금) 15:00~19:00
- 장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삼악물
- 분야 : 도시재생, 환경, 마을교육, 주민참여예산, 사회적 경제, 대의민주주의
- 오시는 길 :
  - 대도교복 이용시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2층 215호 출구
  - 501호 버스 이용: 원대양구 역전 또는 학교 서울대스 이용, 대학본부 주차
- 교통요류시:
  - 강원역서 350m 직지 - 1300번 1에서 하차
  - 아시아연구소 주차장
- 문의 : 02-850-2110, 02-879-5682

주관 : 서울대학교 서울연구원

협력기관 : 사회적연립조합 공동체 연구

## 2018년 한국정치학회 전국 시민정치 교육연구실천 프로젝트 조직

- 한국정치학회 내 **시민정치 교육연구실천 분과위원회** 설치
- 전국 19개 대학, 20개 과목 개설 진행

- |                                    |                                     |
|------------------------------------|-------------------------------------|
| ● <b>NGO와 시민정치</b><br>경희대, 미우라 히로키 | ● <b>갈등과 해결 세미나</b><br>대구대, 이소영     |
| ● <b>글로벌 리더십 연습</b><br>서울대, 김의영    | ● <b>글로벌 리더십 연습</b><br>서울대, 김주형     |
| ● <b>마을정치론</b><br>고려대, 신재혁         | ● <b>마을학개론</b><br>연세대, 이태동          |
| ● <b>세계화시대의 로컬거버넌스</b><br>연세대, 허재영 | ● <b>시민교육</b><br>경희대, 채진원           |
| ● <b>시민정치론</b><br>건국대, 이현출         | ● <b>시민참여와 민주정치</b><br>조선대, 공진성     |
| ● <b>여론과 정치마케팅</b><br>조선대, 지병근     | ● <b>용산구 지역정치 프로젝트</b><br>숙명여대, 김연숙 |
| ● <b>접점론</b><br>한림대, 김재한           | ● <b>경남정치론</b><br>명지대, 김용호          |
| ● <b>정보사회의 정치</b><br>서강대, 류석진      | ● <b>정치학과 현장연습</b><br>한국외대, 이재욱     |
| ● <b>지방정치실습</b><br>아주대, 강신구        | ● <b>지역연구세미나</b><br>중앙대, 손병권        |



### 설립취지

정치학 세부 전공에 따라 기존 과목 중 적절한 수업을 선택하여 지역 기반 학습(CBL: Community Based Learning: CBL) 방식을 도입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수동적인 학생'으로부터 능동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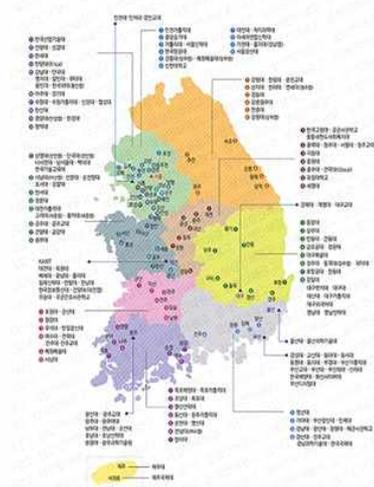
학생들과 함께 지역 사례를 연구하고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한다는 아이디어로, '지역 기반 정치학 교육·연구·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차원에서 한국정치학회 내에 '시민정치 교육연구실천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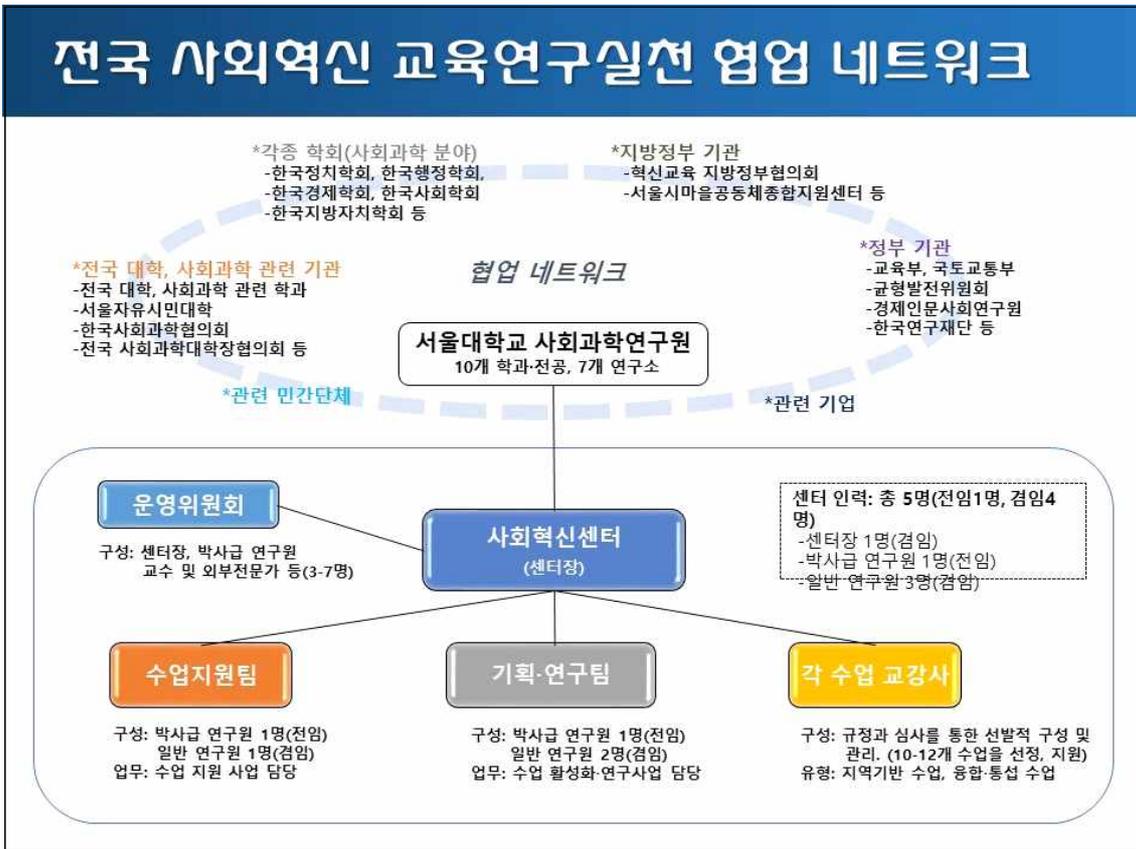
이미 2017년도에 몇 개 대학에서 시도되었고, 2018년 1학기에 전국적으로 20여개의 CBL 정치학 수업을 개설하고, 2018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모든 정치학 및 관련 전공 수업에서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집과 매뉴얼도 출판할 예정이다.

## 정치학을 넘어 사회과학 전반으로

1. 정치학 전공 네트워크를 넘어 **전국 주요 대학의 사회과학 관련 전공으로 확대**
2. 전국 주요 대학 사회과학 각 전공에 **지역 기반 수업 개설**
3. 각 수업에서 교수, 학생, 시민, 시민활동가, 시·군·구 공무원들이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을 혁신하는 **교육·연구·실천 프로젝트** 수행.
4. 대학, 학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업 내용 및 방식 활용
5. 대학이 **상아탑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 현장에 뛰어드는 교육혁신**과 대학-지역의 연계 강화에 의한 **지역혁신**을 통해 21세기에 걸맞은 **사회혁신 패러다임**을 대학을 거점으로 창조·확산시키는 프로젝트.

### 전국대학지도





## 7.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2018.9-2022.2

단계	구체적 목표 및 사업 내용
준비단계 2018.9-2019.2	<p>목표: 1)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 내 3개 과목 시범 실시</p> <p>2) 사회혁신센터의 설립 및 협업 네트워크 확대</p> <p>-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전국 국공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 협조</p> <p>- 2018년 1학기(3월-8월) 성과 발표회(6월 부산, 9월 제주도)와 성과물 출판 준비 중 (한국정치학회).</p>
1단계 2019.3-2020.2	<p>목표: 1)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 내 모든 전공에 8~10개 과목 개설; 전국 주요 대학에 10~20개 과목 개설.</p> <p>2) 사회혁신센터 본격 가동(센터의 Scale-up)</p> <p>3) 협업 네트워크 확대 및 성과 활용, 참여 인센티브 개발</p>
2단계 2020.3-2021.2	<p>목표: 1) 전국 주요 대학으로 사업 확산</p> <p>2) 전국에서 지역별 대학 네트워크 구축</p>
3단계 2021.3-2022.2	<p>목표: 1) 전국 주요 대학으로 사업 확산</p> <p>2) 전국의 거점 지역 대학에 센터 설립(센터의 Scale-out)</p> <p>- 3년 간의 센터 운영 이후 각 지역별 자율적 사업운영, 서울대 센터는 서울지역으로 사업을 제한하게 됨.</p>

---

## 주제발표

“시민연구 플랫폼으로서 민간싱크탱크의 역할”

---

●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



## 시민연구 플랫폼으로서 민간싱크탱크의 역할

김병권 | 서울시 협치자문관 (bkkim21@naver.com)

### 1. '독립연구자'

최근 연구소에 소속되었던 분이 연구소를 떠나면서 그 동안 언론에 기고할 때 사용하던 직함이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공식 연구소 소속이나 학교 소속이 아니면서 전문가로서 언론에 기고한 컬럼의 기고자 직함을 무엇으로 부를지 고민이 되어 이를 공개 SNS로 의견을 구한 것이다. 결국 그분은 '독립 연구자'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학에 공식적으로 적을 두고 있지 않거나, 공식적 연구소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 전문가로서 공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닐까 싶다.

기본소득, 주 15시간 노동, 국경개방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 후 약 15만 부 이상 팔리고 25개국에 출판(예정)되어 있는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이라는 책의 저자인 루트허르 브레흐만(Rutger Bregman)은 29세의 나이다. 그는 네덜란드 위트레흐트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뒤에 “박사 학위를 얻기 위해 중요하지도 않은 주제에 대해 4년씩이나 지루한 공부를 하며 시간을 낭비할 순 없다”면서 비영리 저널리즘 플랫폼을 시작하고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기고활동을 했다. 그의 책에는 청년싱커(one of the continent's most prominent young thinkers)라고 소개되어 있다. 2017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가 있는 그는 이미 유명인사가 되어 TED강연 등에도 모습을 보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형식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이른바 지식 생태계 네트워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좁다. 그렇다고 대학이나 학술조직들이 시민들의 생활현장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이른바 '시민적 필요'를 정책적으로 의제화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과거보다 비판적인 '참여활동'이 더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시민사회 안에서 민간 싱크탱크의 재활성화가 필요한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 짧은 제안 글은 우리의 싱크탱크의 역사를 되돌아 보는 가운데 관 주도 싱크탱크나 대기업 주도 싱크탱크와 달리 시민 주도 싱크탱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시민 주도 싱크탱크의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구성 제안을 요약해 볼 것이다.

## 2. 관 주도 싱크탱크에서 대기업 주도 싱크탱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싱크탱크들이 오랫동안 활동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박정희 개발연대의 한복판인 1971년 세워진 대표적인 공공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7년 현재 직원 300여명, 지출예산 800억 정도로 대규모 정책 연구소다. 현재 총리실 직속으로 되어 있는 인문사회경제연구소 아래 26개 국책연구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이 한국의 정책 지식생산을 가장 왕성하게 주도하던 시기는 1970~1990년대였다. 이 시기를 사실상 ‘관 주도 싱크탱크’의 시대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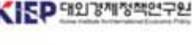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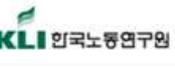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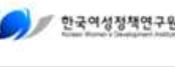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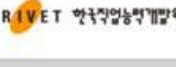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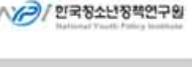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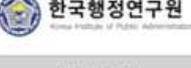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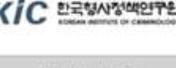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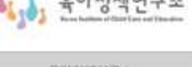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도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KDI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그림 1. 총리실의 ‘인문경제사회연구소’ 산하 국책연구소 목록

그런데, 국책 연구기관들의 압도적 영향력 아래 이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기업출연 연구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이 운영하는 민간 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이 1986년 설립됐으며, 이후 현대를 포함한 몇몇 대기업들과 금융권들이 주로 경제 분야를 주제로 정책 연구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나가기 시작한다. 특히 2000년대 10여 년 동안은 삼성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하여 단순히 기업이 활용할 연구를 넘어 국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연구로 영역을 대거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아마도 한국사회에서 ‘대기업 주도 싱크탱크의 시대’를 풍미했던 시점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삼성경제연구소의 ‘국정과제와 국가 운영에 관한 어젠다’라는 400여 쪽 분량의 방대한 보고서가 제출돼 참여정부의 국정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일화는 잘 알려졌던 얘기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삼성경제연구소는 갑작스럽게(?) 대외적 활동을 대폭 접고 활동반경을 축소시키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같은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10년대에는 기업연구소들의 사회적 영향력은 그 이전에 비하면 미미하다 싶을 정도로 약화되었다.

관주도 싱크탱크의 시기에서 대기업 주도 싱크탱크의 시대가 압도하던 시기에서도 제한적으로는 넓게 잡아서 ‘시민주도 싱크탱크’라고 할만한 시도들이 있기는 했다. 대표적인 시민사회 단체인 참여연대 등이 ‘참여사회연구소’를 부설로 설립해서 활동을 했던 사례, 2006년 독립 민간싱크탱크인 희망제작소의 설립, 대표적인 언론사인 한겨레 신문이 설립한 한겨레사회경제연구소, 금속노조와 금융노조, 공공노조 등이 부설로 설립한 연구소들이 곳곳에서 생겨나던 시기가 또한 2000년대다. 그리고 이와는 약간 결을 달리해서 정당 연구소들이 생겨났는데, 1995년 설립된 보수정당의 연구소인 ‘여의도 연구소’가 가장 대표적이고 모범적으로 정당연구소로서 성장 발전해왔고, 민주당과 정의당도 연구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정책 연구활동을 해오고 있는 중이다.

시민권력시대,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경제·산업 부문						정치·사회 부문							
순위	순위 변동	연구소	영향력	연구의 질	연구 역량	종합	순위	순위 변동	연구소	영향력	연구의 질	연구 역량	종합
1	-	한국개발연구원	460	426	456	1342	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9	97	104	280
2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64	287	296	847	2	-	한국행정연구원	68	109	82	259
3	↑3	산업연구원	241	287	249	777	3	↑2	한국교육개발원	40	68	78	186
4	↑1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221	255	249	725	4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	37	32	99
5	↓1	한국금융연구원	215	218	243	676	5	↓2	서울연구원	23	36	38	97
6	↓4	삼성경제연구소	210	198	248	656	6	-	한국법제연구원	20	37	36	93
7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78	210	224	612	7	↑3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19	38	33	90
8	↓1	LG경제연구원	212	167	150	529	8	↑4	국립보건연구원	20	28	40	88
9	↓1	국회에산정책처	199	162	89	450	9	↑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	32	24	76
10	↑2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107	113	135	355	10	↑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	33	21	74
11	↓1	자본시장연구원	109	110	127	344	11	-	한국학중앙연구원	17	30	22	69
12	↑7	국토연구원	80	107	133	320	11	↑13	한반도선진화재단	27	17	25	69
13	↓2	현대경제연구원	111	93	83	287	11	↑12	희망제작소	32	18	19	69
14	↑32	동반성장연구소	112	80	85	277	14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1	5	28	64
15	↓3	에너지경제연구원	81	85	87	253	14	↑12	한국도시연구소	20	22	22	64

그림 2. 한경비지니스가 매년 발표하는 100대 싱크탱크 목록(2017년 연말 조사 자료)

하지만 2000년대에 생겨난 시민주도 싱크탱크는 그 수나 규모 영향력 측면에서 대단히 취약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도 2010년대 이후에는 더 성장하지 못하고 일정하게 정체상태에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2010년대 이후에는 한국사회에서 ‘싱크탱크 자체의 침체시기’라고 불리도 좋을 만한 상황이 지속된 것이 아닐까 평가해본다. 국책연구소는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여도가 낮아지기 시작했고,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사실상 국책연구소들의 활동과 국정기조는 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책연구소가 대거 세종시로 이전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우수인력이 빠져나온 것만으로 모두 해석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 아울러 앞서 지적한 것처럼, 삼성경제연구소가 국정 의제 세팅 활동을 접어버리면서 2010년대에는 대기업 연구소들의 사회적 영향력 행사도 극도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과 현재는 그래도 재정적 안정성을 갖는 국책연구소가 사회적 인지도나 영향력 면에서 일정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그 실증으로 한경비지니스가 매년 발표하는 100대 싱크탱크 목록을 보면 경제와 산업분야에서는 거의 전부 국책연구소와 대기업연구소로 채워졌다.(15위까지에서 단 하나의 예외는 정운찬 전 총리가 운영하는 사단법인 동반성장연구소 정도다. 행정부가 아닌 국회 산하의 국회 예산 정책처는 초당적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사회분야 연구소에는 그나마 희망제작소와 함께, 2005년에 ‘공동체자유주의’라는 이름아래 민간에서 시작한 보수싱크탱크 한반도선진화재단과, 1994년에 설립된 한국도시연구소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정도다.

### 3. 우리사회의 가장 절실한 의제는 누가 세팅했나?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회, 학계에서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동일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원에서 최저임금인상의 고용효과를 두고 서로 다른 뉘앙스의 정책보고서를 냈다는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사회적인 주요 쟁점과 정책 결정에 싱크탱크가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사회의 변화의 변곡점에서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사회 경제적 이슈에 대해, 정책적 의제로 제기하고 사회적 공론을 만들며 정부와 지자체의 공식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기여해 왔을까?

우선 최근 다시 논란이 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살펴보자. 일부 보수 학계에서는 지금도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면서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정책’이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비주류 경제학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포스트 케인지언의 칼레츠키 학파의 정책 의제였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다고 비판하던 학자들은, 막상 정말 학계의 공식적 용어라고 보기 어려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교과서에도 없는 경제정책이라는 비판은 하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라는 이름으로 포스트케인지언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되어 오다가,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공식 학술행사를 통해 경제정책 대안으로 전면부 부상시키고, 이를 시민 사회 쪽에서 한국노동연구원과 새로운 사회를여는 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원 등이 소개하고 한국적 상황에 맞게 ‘소득주도 성장(Income-led Growth)’라는 이름으로 정책 의제로 전환시킨다. 이후 2012년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에서 국회안의 정책 논의 테이블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올려놓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 등이 적극적으로 연구 활동과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면서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 사례는 기존 주류학계의 정책이 아니지만, 급변하는 사회상황에서 필요로 되는 정책은 대체로 국책연구기관이나 대기업연구소에서 제안되지 않고, 시민 필요의 감수성이 강한 시민사회 싱크탱크가 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기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2010년의 ‘무상급식’을 전후로 급격히 사회정책으로 확장된 ‘보편복지 정책’도 유사하다. 물론 보건사회연구원과 같은 훌륭한 국책연구소의 축적된 활동을 절대로 폄하할 수는 없지만, 당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와 같은 시민사회 연구소들을 주축으로 보편복지 정책을 다각도로 제안하고 기존의 선별복지 프레임을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없다면, 보

편복지 정책이 지금 정도 수준으로 빨리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 ‘사회혁신’은 민선 5, 6기 박원순 서울시정의 공식 주요 정책 기조였다. 박원순 서울시정에서 돋보이게 추진된 마을 만들기 정책, 포괄적 청년정책, 사회적 경제 정책, 공유도시 정책, 에너지 자립마을 정책 등 이른바 수많은 혁신 정책들은 대체로 ‘사회혁신’이라는 이론적, 정책적 프레임에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혁신은 우리 학계 용어를 빌리면 ‘교과서에 없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혁신은 영국개혁 정책 조연가 제프 멀건(Jeoff Mulgon)이 주도하는 NESTA라는 재단이 중심이 되어 확산시킨 정책개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희망제작소가 주로 사회혁신 정책을 소개하고, 개발 연구하고, 실제 자치구 현장에 실험해왔다. 그 사이 서울시 산하의 출연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을 제외하고는 국책연구원이나 대기업연구소, 학계 어디도 제대로 사회혁신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국책연구소인 과학기술 정책연구소가 리빙랩 관련 제한된 연구를 하고 있는 정도가 예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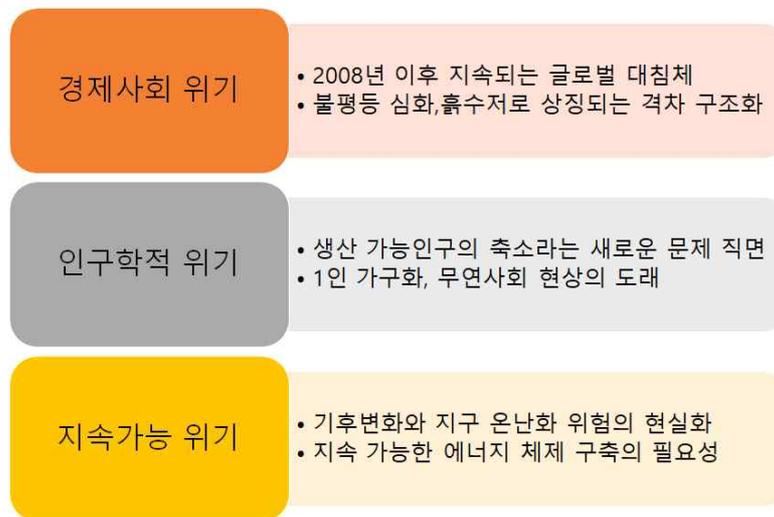


그림 3.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

이상과 같은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기존의 관성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적 과제들이 부상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사회적 의제로 확산시키고, 공공정책으로 설계하는데 국책연구소나 대기업 연구소, 그리고 대학이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후하게 평가해 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미세먼지 문제, 저출산 문제, 청년 문제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대목에서 특히 수와 규모, 경험에서 절대적으로 취약하지만 시민과 가장 근거리에서 호흡해오고 있는 시민사회 싱크탱크들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 4. 시민의 필요에 민감한 건전한 지식 생태계 구성의 필요성

지금부터 9년 전인 2009년 1월 29일, 우리나라 싱크탱크 역사에서 기억될만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책금융연구 전문 싱크탱크인 금융연구원 이동걸 원장이 임기를 1년 반 이상 남겨둔 시점에서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공개했던 이메일 때문이었다. 이전 정부인 노무현정부에서 임명되었던 개혁적인 경제학자인 이동걸 원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추진되고 있는 ‘금산분리’(재벌의 은행 소유 금지) 폐지와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잇단 경고음을 냈고, 정책 추진 부처들로부터 ‘눈엣가시’로 간주되었다”고 언론들은 당시를 평가했다.

그는 이임사에서 “연구원을 정부의 싱크탱크가 아니라 마우스탱크 정도로 바라봤다”면서,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한갓 쓸데없는 사치품 정도로 생각하는 왜곡된 ‘실용’ 정신과 거대한 공권력 앞에 짐이 되어 가고 있었다”며 “정부 정책을 앞장서 홍보하지 않는 연구원장은 제거돼야 할 존재였다”고 자괴감을 토로했다. 이후 ‘마우스 탱크’는 한국 사회에서 자율성과 비판기능을 상실한 관제 싱크탱크를 상징하는 용어가 되어 버렸다.

같은 시기 건전한 노동연구를 주 목적으로 삼았던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이른바 ‘직장 폐쇄’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사태를 비판했던 사회경제학회 등의 공동성명을 보면 “평소 노사관계에 관해 편향된 발언을 일삼던 연구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라는 정치적 수사 하에 돌격대 식으로 공격을 감행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보수언론은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한 측면지원을 넘어서 예산축소 및 기구 자체의 존폐마저 언급하는 개탄스러운 사태에 이르렀다.”고 논평하고 있다. 이동걸 금융연구원장과 달리,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개헌시 노동3권 제외 고려해야”한다고 발언하여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위의 사례는 비록 지난 일이긴 하지만, 국책연구원들이 가장 막대한 지식 정책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단독으로는 늘 빠지기 쉬운 ‘권력의 영향권’이라는 함정일 수 있다. 이는 대기업연구소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이다. 뛰어난 인력 풀을 보유하고 있고, 기업 연구소답게 미래적이고 창의적인 주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싱크탱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과는 또 다른 ‘경제 권력의 영향권’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극적인 부침은 연구소 자체 논리라기보다는 삼성의 논리, 총수의 논리의 결과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4. 다양한 연구 주체들의 협업 네트워크 구성 예시

따라서 특정 세력의 ‘마우스 탱크’가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수요, 특히 시민들의 절실한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자원과 고도의 전문적인 연구 기법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지식 생태계’가 잘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와 기업들은 자신들의 산하 연구소들을 육성(?)하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시민사회의 독립 싱크탱크를 의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책지식 생태계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주체들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주도 싱크탱크에게는 ‘독립성’과 싱크탱크 사이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재 시민의 정책역량은 그 창의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소그룹별로, 각 주제별로 흩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사적 수익이나 영리를 추구할 수는 없지만, 일종의 ‘사회적 지식’이자 ‘지적 공유자산’으로서 공적인 지원과 여건 마련의 정당성이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정부나 지자체 편익적 방식’으로 묶거나, ‘대기업적 방식’으로 통합해서는 고유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각 싱크탱크나 정책역량의 독립성을 인정하되, 상호 소통과 상호 협업, 다양한 방식의 공동 연구를 촉진시킬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혁신을 위한 정책역량이 자라나도록 해주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된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종의 ‘민간 정책 협업 풀(Think Pool)’을 구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즉, 시민사회에 흩어져 있는 종합 연구소, 부동산이나 금융 등 특화 전문 연구소, 1인 연구소 등 서울 소재 독립된 연구소들이 각자 자신의 정책 능력을 강화하면서도 온, 오프라인에서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정책 방안들을 생산해 낼 환경을 조성하도록 기획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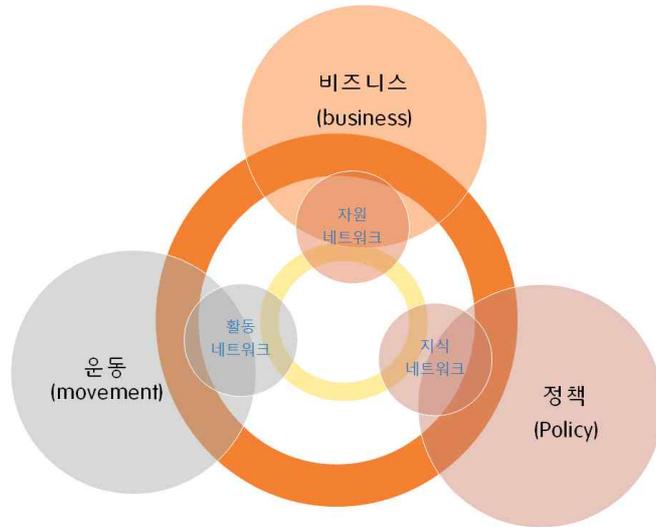


그림 5. 시민사회의 정책과 운동, 비즈니스 결합

“지금 필요한 것은 Big Money가 아니라 ‘Big Think'의 시대다. ‘Big Think’는 ‘Big Money’처럼 중후 장대형 대기업 방식이 아니라, 독립성과 다양성을 살리면서도 서로 소통과 협력에 의해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협업공장 방식이어야 한다.



---

## 지정토론

“영국 람베스구 사례를 통해 본 시민학습지원 및 시민연구사례”

---

-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대표, 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 영국 램베스구 사례를 통해 본 시민학습지원 및 시민연구사례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대표  
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Service Innovation

### ▣ 영국 현대 공공서비스의 변화과정

- ① 2차 세계대전 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국민 대상 사회복지 제도 확립
- ② 영국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발전
- ③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재정악화 및 근로의욕 저하 초래
- ④ 대처(Thatcher)정부가 사회현상 개선을 취지로 공공서비스 민영화
  -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가격 인하와 품질 개선' 의도와 반대로 진행됨
- ⑤ 런던 램베스구를 비롯한 23개 지자체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공표
  - 공공가치를 추구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 모색



— 개인의 기호와 생활방식에 응답하는 공공서비스 —  
 "We are trying to find a way to reinvent public services to make them more responsive to individual preferences and lifestyles," explains Lambeth council leader Steve Reed. "We want public services that do things with people rather than do things to people. At its core, this is about shifting power to people so they have more control over their lives."

Nonetheless, he is encouraged by the focus on the co-operative ethos. "There is a paradox: there has never been a time of greater cuts in public services but there has never been more creativity. It's not straightforward, at a time of insecurity, to change an organisation's form and the delivery of services, but at the same time there could be so much on offer if that's the route people choose to go."

조직형식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 권한의 이동이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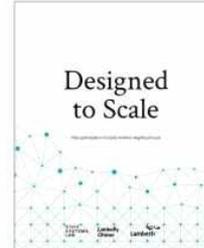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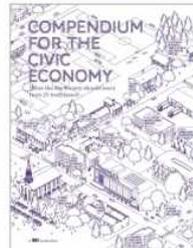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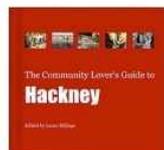


Civic Systems Lab

## Civic Systems Lab

### Social Spaces + Project 00

- Action research
  - The Travelling Pantry
- Publication
  - Hand Made and Community Lover's Guides
  - Empathetic City
  - Compendium for the Civic Economy
  - Designed to scale(Open Works research)





Civic Systems Lab

## Civic Systems Lab

### Project 00

- 건축가, 전략기획자, 프로그래머, 사회과학자, 경제학자, 도시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프로젝트 그룹으로 혁신적 사례 발굴
- '오픈 비즈니스 모델' 형태로 벤처 육성 및 운영

[www.project00.cc](http://www.project00.cc)

# 00



**ARCHITECTURE 00**  
Architecture and strategic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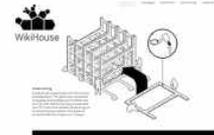
**OPEN DESK**  
Global platform for local making



**DO LABORATORIES**  
Collective platform for social entrepreneurs



**CIVIC SYSTEMS LAB**  
Design Lab seeding the civic economy



**WIKIHOUSE**  
Open source construction system



**STUDIO WEAVE**  
Exploratory Architectural Studio



Civic Systems Lab

### The Empathic City / 공감적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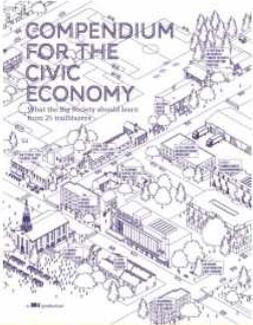
공감적 도시는 project 00과 로테르담 건축소 Air의 공동 저술로 시민 자발적인 참여움직임을 맵핑함

“사회적 혁명은 도시에서 꽃핀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자발적으로/풀뿌리) 공생한다.  
모방하는 사람의 동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공감적 도시의 힘이다.  
공감적 도시는 잠재력을 깨운다. 그것은 수용력이 있으며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준다.  
그것은 빠르게 시작하며 행동함으로 발전한다.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이다.”

**De empathische stad**

Sociale innovatie bloeit op in de stad; top-down en bottom up zijn symbiotisch; beweegredenen liggen initiatiefnemers na aan het hart. Dat blijkt de groeikracht van **De empathische stad**.

**De empathische stad:** spreekt die kracht aan; is ontvankelijk en alert voor nieuwe verbindingen; begint direct en ontwikkelt werkendeweg. Niet nieuw, wel anders: **De empathische stad**



### The Compendium for the Civic Economy / 도시 경제론

(2011년 출판) 시민 기업가 정신의 거대한 잠재력을 조명하여 사회, 경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알리고자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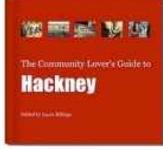


Civic Systems Lab

**Community Lover's Guide to the Universe /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계로 향하는 지침서**

- 새로운 참여 문화의 도래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
- 세계의 혁신적인 참여형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클라우드 소싱 출판물
- 실제 사례를 프러파일링하여 자생적이고, 창조적인 커뮤니티를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소개

→ 누구나 참여가능 한 오픈된 형태로 제작하여 온라인 공유  
[www.communityloversguides.org](http://www.communityloversguides.org)






◆ 프로젝트 특성

- Creative / 기존아이디어 + 새로운 아이디어
- Collaborative / 집단 협업 운영으로 잠재력 + 성공
- Resourceful / 다시 사용하고, 다시 상상하고, 다시 설정하고, 재활용
- Practical / 사람에게 배우고 + 나누고 + 함께 만들고(경험)
- Emergent / 작지만 기회를 잘 활용, 실험을 통해 발전
- People-led / 사람들의 열정을 발전
- Exemplars of place-based participatory culture / 공간 위주의 참여 문화 모범

→ 참여 문화의 특징과 다양성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능



Civic Systems Lab

**Civic Systems Lab's <Hand Made and Community Lover's Guides>**

Hand Made









Rotterdam










Hackney












Civic Systems Lab



## Civic Systems Lab's <Hand Made and Community Lover's Guides>

---

Amsterdam

  
Noorderparkkamer

  
I can change the world with my two hands

  
Fashion Street

  
Makkie local currency

  
Soehring Pocketgarden

  
Hot Mama Hot

---

Berlin

  
Rutiwear

  
World Kitchen

  
Workstation

  
UfaFabrik

  
EvRosaPrint

  
Prinzessinnengarten

  
ID22

---

Birmingham

  
Loaf

  
Aam Project

  
Social Media Surgeries

  
Urban Harvest

  
Cotteridge Park

  
ChangeKitchen



Civic Systems Lab



## Civic Systems Lab's <Hand Made and Community Lover's Guides>

---

Cambridge

  
Cropshare

  
Plough and Fleece

  
Freedom Club Timebank

  
Twinning Households

  
Accordia Open Space

  
Makesspace

---

Utrecht

  
Foundation

  
Wigenhof

  
De Krakeling

  
I Old

  
Tafelboom

  
In Space

  
Pick the City

---

Madrid

  
Jubilares

  
1000 Stones

  
Weaving Malasana

  
Spire 23

  
El Campo de la Cebada

  
Biernes con B



Open Works

## OPEN WORKS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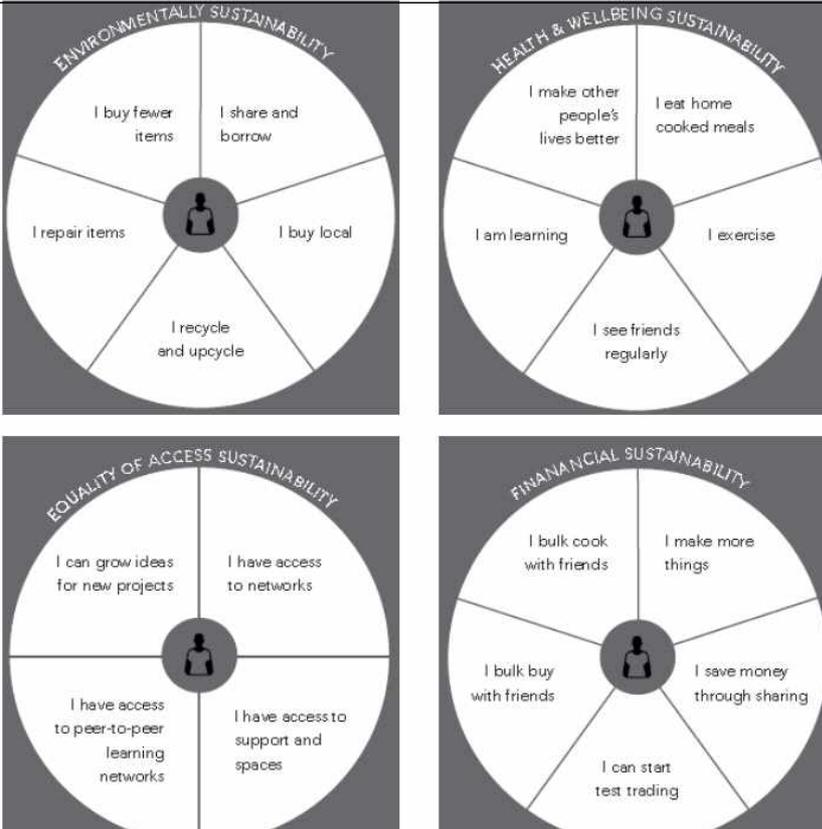
람베스 의회 + Civic system Lab ▶ **The Open Works** 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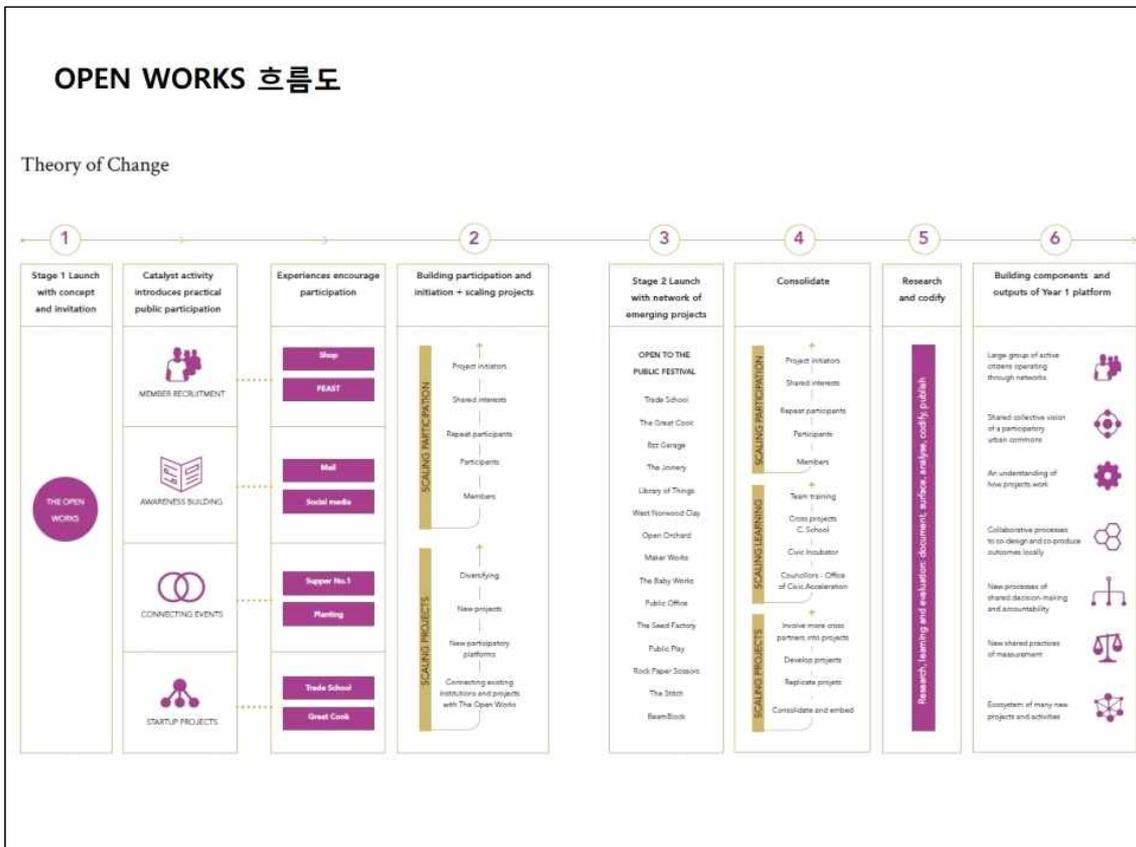
- 런던 람베스 west norwood 지역의 '참여문화'를 기반한 생활 시범 시스템 운영
- 12개월(2014. 2.~2015. 2.) 동안 1,000명의 사람들과 협업하여 20개의 프로젝트 진행
- 지역주민의 잠재적인 참여의식과 행동을 이끌어내어, 지역에 의미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향후 사회적 기업의 창업까지를 기대하는 혁신 프로젝트
- 오픈웍스 프로젝트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사회와 커뮤니티의 변화(reshape)를 시도하며 새로운 길을 찾는 혁신적인 일들을 하는 것에서 착안
- 람베스구의 비어있는 상점공간을 이용하여 Works Shop라는 공간을 만들어, 람베스구 소속 공무원이 시민들을 기다리며 상담을 제공
-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아이디어라도 시도해보고 싶은 시민들은 이 공간에 부담없이 공무원과 상담을 해보고, 1차 프로젝트를 시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지원받을 수 있음



### Open Works의 목적

4가지 분야에서 지역의 회복력 (Recovery Resilience) 을 높이는 것







Open Works

## OPEN WORKS 추진 관련 참고 사례

### Case 1. 빈 공간을 활용한 지역 재건 (스페인, 사라고사)

- 기원
  - 신흥 임시 고용사업으로 인한 두가지 문제점(실업난/부동산 붕괴로 생긴 유휴공간) 발생
  - 6개월 동안 도시 미관 및 빈 공간 정비를 위해 61명의 근로자 고용
- 조직논리
  - 컨셉 발전을 위해 커뮤니티 그룹, 건축가, 지역 주민 협의체 구성
  - 60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과정 전반에 걸쳐 참여
  - 놀이 공간, 정원, 농구장, 볼링장 등의 공공장소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민들과 함께 진행
  - 몇몇 공간들은 이벤트, 강의, 워크샵, 문화의 밤 등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됨
  - 사회적 갈등 발생률이 높은 침체된 지역이 새로운 회의와 미팅을 이웃들과 진행하며 지역에서 과일과 채소 등을 함께 재배할 수 있게 됨
- 결과
  - 2009년부터 32개의 도시의 버려진 공간이 공공장소로 재활용됨







**Lambeth**

Open Works

## ■ OPEN WORKS 추진 관련 참고 사례

**Case2. 도시 풍경을 위한 공공협력에 대한 규정(이탈리아, 볼로냐)**

**■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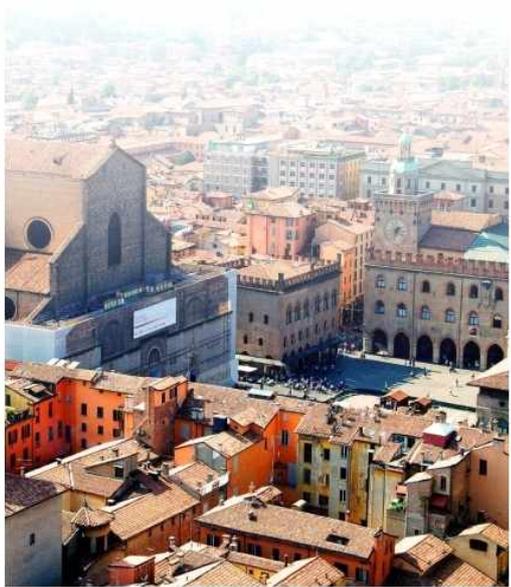
- 2014년 한 여성 단체가 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공원의 일부 벤치들을 기증해 달라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함
- 공공장소에 행하던 이러한 기증 행위가 불법적 행동으로 치부됨
- 2014년 이후, 이 상황에 대한 부조리함을 인식한 위원회는 '시민과 도시 풍경 관리 및 재생 사이의 협력'에 대한 규정을 통과시킴
- '볼로냐의 도시 풍경을 위한 공공협력에 대한 규정'

**■ 조직논리**

- '볼로냐의 도시 풍경을 위한 공공협력에 대한 규정'은 시민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여할 수 있는 법적인 경로를 제공
- 즉 시민들이 공유지에 대해 사명감과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 결과**

- 시민 주도로 유지되는 프로젝트 100건 이상 ▶ 지방 정부와 '협력 협정'을 체결
- 프로젝트는 환경적, 사회 지속 가능성, 경제적 재분배 및 재생에 집중





**Lambeth**

Open Works

## ■ OPEN WORKS 추진 관련 참고 사례

**Case3. 재생 가능한 에너지 네트워크 WREN(영국, 웨이드브릿지)**

**■ 기원**

- WREN은 2011년 4월에 콘월 마을주민에 의해 설립됨
-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적 기술을 설치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함께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조직논리**

- WREN은 에너지가 개인 비용보다 사회단체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친구들이 모여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웨이드 브릿지 및 주변 지역이 고가의 비용으로 수입을 하고 있던 신재생 에너지 자원(태양, 풍력, 수력 및 숲)을 변화시키기로 결심

**■ 결과**

- 지역 경제 및 고용 혜택이 웨이드브릿지에서 빠르게 전파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해 찬성하는 논증이 강하게 입증됨
- 이 마을 8,300명 사람들 중 830명, 즉 주민 10%는 2013년 WREN의 회원이 되었다.
- 신재생 에너지의 고용 효과 및 경제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참여가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Lambeth**

Open Works

## ■ OPEN WORKS 추진 관련 참고 사례

**Case4. 지역에서 이웃끼리 필요한 것을 교육하는 러닝드림(미국, 미네소타)**

**■ 기원**

- 자신의 꿈을 달성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부모의 열망을 사용하여 학습 문화에 성공적으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동기부여함
- 학습은 교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정, 도서관, 공원 등 사방으로 이루어진다.

**■ 조직논리**

- 러닝 드림은 이웃을 연결하여 작동
- 미네폴리스 미네소타 공공 주택 지역 사회에서 3년간 파일럿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후에 독립적인 조직으로 성장
- 공립학교, 도서관, 지역 사회 단체, 고용센터, 지역 대학과 기업과 학습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어린이와 부모에게 새로운 학습 경로를 제공하고, 이 파트너 조직은 보다 효과적으로 가족들과 연결됨

**■ 결과**

-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및 무단 결석률이 0%로 떨어짐
- 같은 지역에 여러 가족의 학습이 연결될 때, 학습 문화는 사회 전체로 확산





**Lambeth**

Open Works

## ■ OPEN WORKS 추진 관련 참고 사례

**Case5. Mensheds(호주와 전세계)**

**■ 기원**

- 사람들이 개방적인 공간에서 토론할 수 있다고 느끼게끔 사회적 상호 작용 환경을 만드는 실행 워크숍
- 기술자들은 공간과 도구 공유, 사회적 접촉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의사소통을 장려하는 독특한 방식 덕분에 현재 최전선에서 남성의 건강을 지켜내고 있음

**■ 조직논리**

- 각 창고는 Mensheds 웹사이트 스타터키트에 액세스할 수 있으며, 이는 회원들에 의해 국부적으로 시작됨
- 이러한 오픈 소스 방식은 2005년에 30개의 모델에서 2015년에 1,400개의 모델로 확산됨

**■ 결과**

- 사회적 고립을 줄이고, 건강 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며, 복지 증가
- 전통적인 의료 서비스에서 자체 배제된 노인 인구를 효과적으로 장려
- 가정 생활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남성 행복 증가가 가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긍정적 반응을 일으킴.



Lambeth Open Works

## OPEN WORKS 추진 관련 참고 사례

**Case6. 브릭스톤 피플스 키친(영국, 런던)**

- **기원**
  - 브릭스톤 피플스 키친(BPK)은 지역 아웃렛이나 식료품점에서 식재료를 기부 받아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식사하는 행사를 운영함
  - 한달에 한번 브릭스톤 지구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단순히 음식을 공유하는데 끝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행사가 벌어지는 커뮤니티의 장으로 이뤄짐
- **조직논리**
  - 주방은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운영하는 비 화폐 모델
  - 지역에 음식을 공급하는 사업체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주방을 갖추고 있는 학교나 지역사회 등과도 협력을 맺음
- **결과**
  - 매립지에 묻힐 뻔했던 음식들을 통해 음식물 낭비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태도를 갖도록 함.
  - 공동체 단결력을 높였으며 지역 주민들의 교류 증진
  - 요리와 음식을 제공하는 참가자들의 도움으로 주방은 또한 새로운 기술과 건강한 식생활을 장려



Lambeth Open Works

## OPEN WORKS 추진 관련 참고 사례

**Case7. 놀라운 먹거리 (영국, 토드모든)**

- **기원**
  - Incredible Edible Todmorden(IET)는 공공토지에 게릴라처럼 과일나무와 채소를 재배하는 그룹으로 2007년에 시작.
  - 이 그룹은 지역에 있는 열성적인 사람들의 느슨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의회뿐만 아니라 기차역, 경찰서, 병원, 학교, 주택협회 같은 다른 지방단체들과도 교류를 취함.
  - 영국에는 100개 이상의 그룹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뉴질랜드와 캐나다에도 뻗어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조직논리**
  - 공유장소에서 채소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참여에 대한 장벽을 해소시킴
- **결과**
  - 이 운동의 종합적인 검토는 아직 없으며, 현재 더 나은 작업수행 협력관계를 탐구하고 있음.
  - 25개의 새로운 일자리, 로컬푸드 사업으로 관광객이 많아짐. 또한 지역 모든 학교들이 참여해서 채소 재배하는 기술을 배워 미래 직업개발에 기여함.




Open Works

## OPEN WORKS 추진 관련 참고 사례

**Case8. 리딩 룬(네덜란드, 로테르담)**

- **기원**
  - 2011년 로테르담은 21개의 지역 도서관 중 15개를 폐쇄할 계획을 발표
  -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 이상적인 독서실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전략을 고안하였고, 적극적인 지역 사회 참여 분위기 조성
  -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일 워크샵, 공연, 강연, 연극, 영화의 밤 및 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거기엔 1,000권의 책, 5가지 다른 신문, 컴퓨터, 와이파이, 좋은 커피와 차가 있음
- **조직논리**
  - 학습 네트워크와 워크샵들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아이디어와 그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줌
- **결과**
  -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모로코의 말레이시아 여성들, 네덜란드 미혼모들, 청소년들은 프리랜서나 파트타임이 되어 환영과 참여를 느끼는 장소로 변모
  - 일자리들이 생겨났으며, 로컬 푸드에 대한 사업으로 관광객이 많아져 지역 경제 살리고 있음




Open Works

## 지속가능한 지역변화를 위한 설계

“소규모의, 파편화된, 저조한 빈도의 참여는 지역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Small, fragmented, low frequency participation will not transform neighbourhood.**”

- 1) 지난 6~10년 사이에 출현한 '참여 문화'의 새로운 형태를 플랫폼 접근 방식에 의해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테스트 하는 것을 목적으로
- 2) 아이디어를 실험해보기 위해서 하나의 소규모 생활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설계
- 3) (2014~2015) 런던 램베스 웨스트 노르우드 지역에서 20개의 프로젝트(Open Works) 진행

**혁신적이고 데이터에 기초한 '참여 생태계' 조성을 위해 3개년 과정을 계획**

- 1 stage** 프로토타입 만들기 I 플랫폼 전략 기반 시범 형태에서의 다양한 결과와 데이터 등을 취합
- 2 stage** 완성된 시스템 개발 I 프로토타입을 통해 수집된 자료 기반한 실행가능성과 가치 창출
- 3 stage** 장기 투자 유지 I 창출된 실제 가치 및 유지된 실질적 투자, 실제 비용절감을 기반함



Open Works

## ■ 새로운 사회 참여모델

**참여문화 기반 사회 참여모델**

사회적/자본적 결합, 건강, 교육 등의 이익이 모두에게 돌아가고 서로에 기여함

**기존 사회 참여방식**

1) 대표자(대리인)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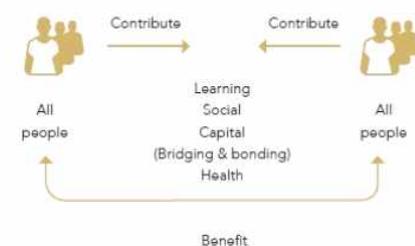
- 의회 등 소수의 선출된 대리인이 대중의 의견을 대변하고 이익을 분배함

2) 기부 방식

- 풍족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원과 봉사(시간)를 통해 복지혜택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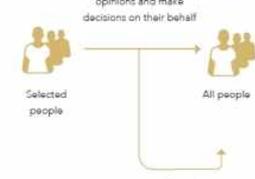
**PARTICIPATION CULTURE**

Co-production



**REPRESENTATIVE MODEL**

Represent people's opinions and make decisions on their behalf



**CHARITY MODEL**

Give time and money





Open Works

## ■ 오픈웍스 소셜 랩(lab) 운영 방식

*"소셜 혁신 랩들은 시스템 변화를 위한 최선의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셜 혁신랩들의 일반적 특성**

- 1) 랩은 광범위한 연구를 여러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여 시작한다.
  - 랩은 시스템 접근방식을 취하고 문제의 전체적 구조가 의미하는 바를 간주한다.
- 2) 랩은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업을 용이하게 한다.
  - 다양한 관점에 대해 협업이 가능한 환경의 제공
- 3) 랩들은 특별한 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한다.
  - 사회적 변화 랩들은 과학실험실과 유사하게 실험을 위한 공간이다.
  - 공간적 환경은 창의성과 협력에 영감을 주기 위해 디자인 되어야 한다.
- 4) 랩은 아이디어의 신속한 프로토타입화를 통해 실험하고 반사 학습을 강화시킨다.
  - 재빠른 시제품화를 통해 배움의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여간다.
  - 이 변화 과정에 관여하는 관계자와 기관이 진정으로 유연하게 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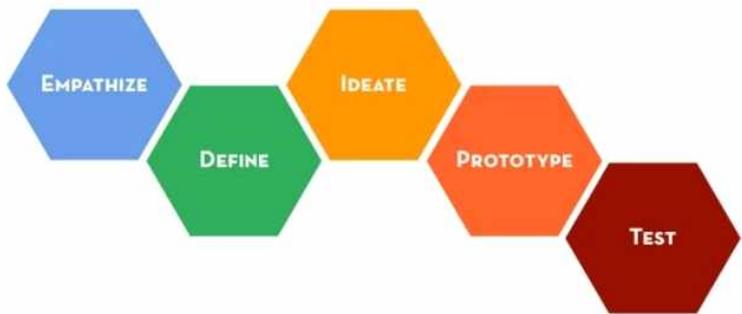

Open Works

## ■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디자인 사고는 근본적으로 탐구과정이다. 언제나 예기치 않은 발견을 만들어낼 것이다."

**디자인적 사고는 랩 테크닉의 중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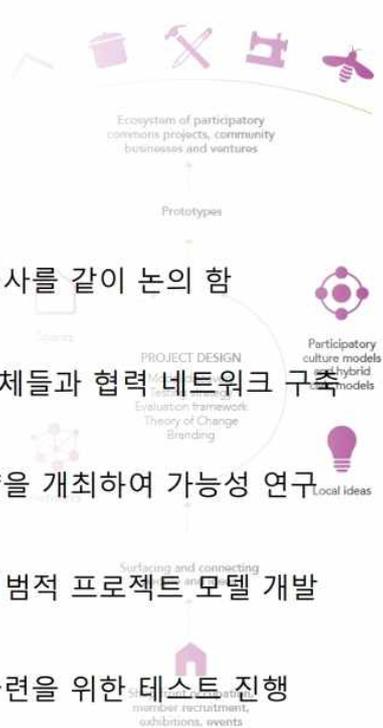
- 1) IDEO와 같은 조직은 디자인적 사고 접근에 개척을 지속해 왔으며,
- 2) 인본적 사고의 디자인 접근방식과 함께, 사회적 시스템의 대다수 디자인 설계에 공헌해 옴
- 3) 디자인 사고에 의한 공급 프로세스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게 되지만,
- 4) 점차 변화하다 보면, 전통적 프로세스와는 크게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음


Open Works

## ■ 오픈웍스 인큐베이션 프로세스

- ① **구성원 모집**
  - 지역사회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 ② **구성원 회의**
  - 모든 멤버들은 그들이 가진 생각이나 관심사를 같이 논의 함
- ③ **기회 지도 만들기**
  - 맵핑 작업을 통해 지역단체, 시의회, 사업체들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④ **프로젝트 설계**
  - 공통 관심사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 워크샵을 개최하여 가능성 연구
- ⑤ **시범적 모델과 프로젝트 시작**
  - 이름, 브랜드, 로고, 초기활동 등을 통해 시범적 프로젝트 모델 개발
- ⑥ **프로젝트 키우기**
  -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고 자원 마련을 위한 테스트 진행



Lambeth Open Works

## □ 오픈웍스 주요 플랫폼 브랜드

지역주민들의 협동과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브랜드를 통합하는 역할을 함

Lambeth Open Works cases

##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 001 | Trade School (재능교환 학교)

■ 개요

- 강사와 학생 간의 물물교환을 기반으로 한 비금전적 가치의 교환 및 학습 경험 제공
- 창의적 아이디어, 실용적 기술, 경험적 지식에 동등한 가치를 매기고 누구나 제공할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상호 존중
- 강압이 아닌 윤리적 책임감에 의해 동기부여를 하며, 항상 학습하고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커뮤니티를 지향

■ 참고사항

- 트레이드 스쿨은 오픈웍스의 첫번째 프로젝트였음



Open Works cases

##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 002 I The Great Cook (공동 주방)

**■ 개요**

- 사용되지 않는 주방공간에 대한 생산적인 사용방안 탐구활동
- 냉동보관 되고 장기보관 되는 식재료에 대해 고효율의 활용 방안 및 건강한 식단 구성에 대한 공동의 추진방안 모색
-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참여자들 간의 친숙한 분위기 형성과 정기적 미팅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모

**■ 참고사항**

-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배경으로부터 다수의 레시피가 모아지고 새로운 음식 메뉴에 대한 테스트 기회가 발생함
-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요리 작업에 흥미를 느끼고 레시피를 공유하는 것에 많은 행복감을 느낌





Open Works cases

##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 003 I Potluck Suppers (공동 식사 모임)

**■ 개요**

- 요리/음료를 모두가 가져와서 함께하는 공동의 식사
- 식기, 음료, 테이블 데코레이션, 혹은 음식 차리기, 설거지 등 역할이 적힌 리스트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지 고를 수 있음
- 누구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말하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참고사항**

- 새로운 프로젝트 디자인은 한 주 동안 가게에서 일어난 해프닝들에 대한 대화를 시각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게시판에 게시
- 기존 멤버와 새로운 멤버가 관계를 형성하고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공유를 지속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고 협업관계가 이뤄짐



Lambeth 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 004 I Start Here (아이디어 창작소)

■ 개요

- 젊은이들이 디자인하고 만들고자 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인큐베이터 시설로써 새로운 탐구의 기회 제공
- 플랫폼 모델은 지식과 지역민들의 기술과 자원들을 엮는데 작동함
- 보유자원의 창의적인 사용은 새로운 프로젝트들과 벤처기업을 만들어 내고 있음

■ 참고사항

- 오픈웍스 팀에 처음으로 이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은 지역의 기업가로 보석공예가였으며, 그는 홀로 기술들을 배우며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었지만 이제 그의 노하우를 젊은이들에게 나누고 싶다고 제안하였음
-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술을 젊은 청년들에게 공유할 용의가 있음



Lambeth 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 005 I Bzz Garage (버스 차고지 정원)

■ 개요

- 벌꿀 친화적인 플랜팅을 장려하고 공유지에서 자란 농수산물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젝트
- 사람들에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길가 녹지, 집 앞 정원, 창틀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
- West Norwood를 아름답게 하는 지식 등을 공유, 열정적인 가드너들을 위한 공공적 즐거움을 창출

■ 참고사항

- 포틀럭 서퍼 모인 사람들이 벌꿀 친화적 가든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다가, 이 내용이 2명의 지역 가드너에게 소개되며 프로젝트가 시작됨
- 식물, 도구, 종자, 재배 지식, 보기 흥했던 퍼블릭 스페이스를 바꾸려는 열정을 가지고 35명의 사람들이 모였음





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 006 I Library of Things (물품 도서관)

- 개요
  - DIY, 메이킹, 쿠킹, 가드닝, 레저 생활 등을 위한 장비와 도구를 누구든 빌릴 수 있는 공간 조성
  - 회원들은 대여한 아이템을 집에서의 작업을 위해서 빌릴 수 있으며 프로젝트나 벤처를 발전시키는데에도 활용할 수 있음
  - 대여 메커니즘은 직접 사기에는 너무 비싸거나 이웃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한 장비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었음
- 참고사항
  - Library of things라 불리는 독일의 대여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런던에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오픈웍스 프로젝트를 통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함





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 008 I Open Orchard (공동 과수원)

- 개요
  - 공공 장소에 과일 나무를 심도록 장려하는 프로젝트
  - 공유 녹지 공간의 활용도 및 향후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동네에 과일 나무 지도를 만들고 재배
  - 공동 재배 및 수확, '퍼블릭 잼' 제조 등의 활동은 건강한 식생활과 이웃과의 교류를 촉진시킴
- 참고사항
  - 공유지에 과일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현장을 방문한 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을 초대해 '페스티벌 오브 아이디어'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함
  - 정원 공간 네트워크를 결성하였으며, 앞으로 수확, 잼 만들기 및 지식 공유 활동 계획을 세워 두고 있음



Lambeth 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 009 I Rock Paper Scissors (소규모 생산자를 위한 편집샵)

■ 개요

- 메이커스 및 판매자들이 시내 중심가의 매장을 공유하는 공동상점
- 위탁 수수료를 내는 대신 근무 당변표에 따라 돌아가며 상점을 돌보고 제품을 판매함
- 제작과 판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공간을 함께 쓰며 일을 하게 되면 위험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 모델의 유연성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다니거나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도 판매 아이디어를 키울 수 있었음

■ 참고사항

-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큰 위험 부담 없이 상품을 테스트하고 돈을 벌고, 해당 사업 분야에서 자신을 드러낼 확실한 기회였다고 함
- 매장을 돌보는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팀워크 의식을 길러주었다고 소감을 말했으며, 이후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음



Lambeth 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 010 I The Stitch (재봉틀 공작소)

■ 개요

- 니트, 바느질, 재단사, 공예사 등의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
- 모임을 통해 기술을 개선하고, 다른 사람의 회사에서 바느질의 기초를 배우고, 사람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주로 새 것을 구입하는 것보단 수리나 재 디자인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주로 함

■ 참고사항

- 정해진 주인 없이 초보자 또는 숙련된 업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협력된 분위기를 만들어냄
- 사람들은 창조적인 기술 공유, 비공식적이며 친절한 분위기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음





**Lambeth**

Open Works cases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011 I Civic Incubator (시민 역량 발굴터)**

■ 개요

- 시민 시스템 연구실 워크숍 및 가속 프로그램에 영감을 얻어, 6주간 시민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아이디어 발전시키는 회의 등을 진행
- 시민들이 자신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함

■ 참고사항

-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것이 도시를 변화시키게 됨.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시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이를 발전시키거나 혹은 도시를 위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일을 함
- 시민 벤처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며, 도시 전체가 시민 벤처를 육성하고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Lambe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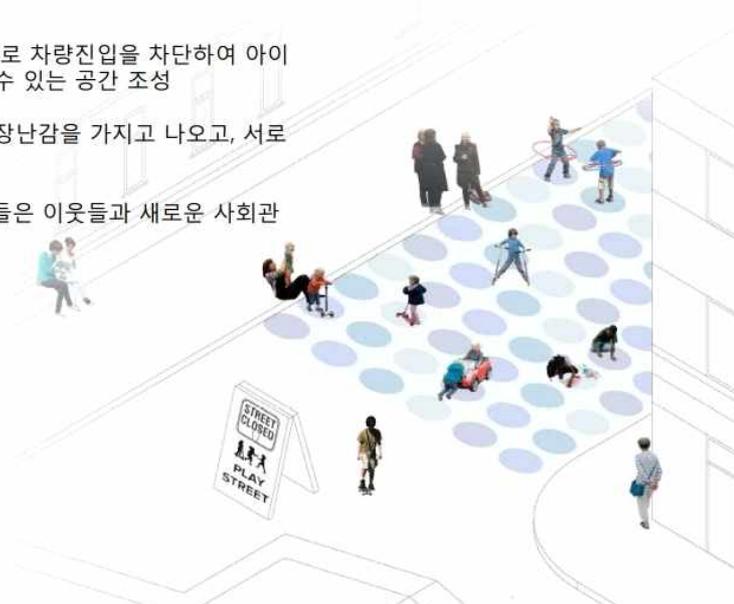
Open Works cases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012 I Play Street (놀이광장)**

■ 개요

- 거주지역의 차로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진입을 차단하여 아이들이 외부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조성
- 부모들과 이웃들이 집 밖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나오고, 서로 공유하며 참여하는 프로그램
- 아이들은 친구를 만들고, 부모들은 이웃들과 새로운 사회관계 구축하는 기회 제공



Lambeth 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 013 I Department of Thinkers (DIY 창작터)

- 개요
  - 아이들이 지역의 어른들, 부모님들, 조부모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체험하며 지식과 제작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
  -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 간 소통을 도모하는 사회적 활동 경험 제공
- 참고사항
  - 아이들의 만들기, 해킹, 고민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오픈웍스 행사를 통해 지역의 예술가와 선생님들을 만나 프로그램의 컨셉에 대해 담소를 나누다가 기획됨
  - 부서진 전자제품, 기부된 재활용품, 안전한 유리상품 등이 프로젝트에 활용됨



Lambeth 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 014 I Public Office (열린 사무실)

- 개요
  - 열린 사무실은 프리랜서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도모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디어들을 만들고 벤처들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임
  -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인력과 지역의 인력을 찾는 수요 간 만날 수 있는 플랫폼 역할 수행
- 참고사항
  - 열린 사무실 프로젝트는 3개의 공간에서 6주 간 진행됨
  - 참가자들은 집 밖으로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 생산적이고 즐겁게 일을 해나가는 경험에 만족해 했음





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 015 I West Norwood Soup (클라우드 펀딩 식당)

■ 개요

- 시민들 간 서로의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프로그램
- 모든 티켓은 한 끼의 식사를 포함하며, 하나의 프로젝트를 후원할 수 있음(티켓 구입비의 50%는 프로젝트 후원비로 50%는 식사재료값으로 충당됨)
- 프로젝트 제안자들은 저녁에 그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식사를 하며 무슨 프로젝트를 지원할지 투표를 함

■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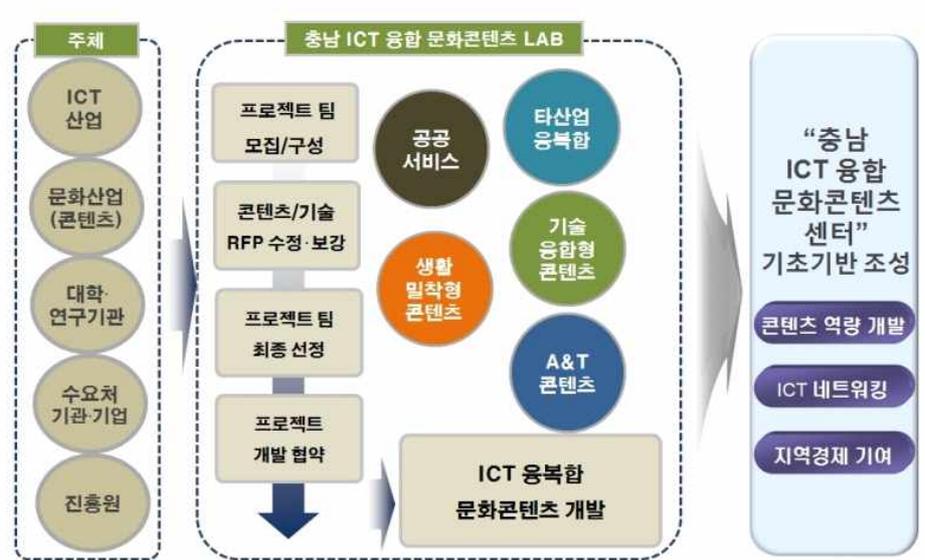
- 본 프로젝트는 지역 단위에서 소규모 지원(micro grant)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의 시범사업임



충남형 추진사례 소개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ICT 융합 문화콘텐츠 랩(lab) 운영

충남 문화산업 육성 거점이자 문화예술 향유와 첨단 ICT 융합 콘텐츠 생산이 함께 이뤄지는 창작 및 융복합 인프라 조성을 위한 1단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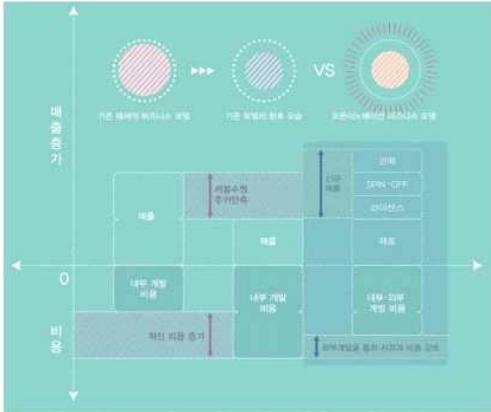
```

            graph TD
            subgraph Subject [주제]
            S1(ICT 산업)
            S2(문화산업 콘텐츠)
            S3(대학 연구기관)
            S4(수요처 기관기업)
            S5(진흥원)
            end
            subgraph Lab [충남 ICT 융합 문화콘텐츠 LAB]
            direction TB
            L1[프로젝트 팀 모집/구성]
            L2[콘텐츠/기술 RFP 수정·보강]
            L3[프로젝트 팀 최종 선정]
            L4[프로젝트 개발 협약]
            L5[ICT 융복합 문화콘텐츠 개발]
            L6((공공 서비스))
            L7((타산업 융복합))
            L8((생활 밀착형 콘텐츠))
            L9((기술 융합형 콘텐츠))
            L10((A&T 콘텐츠))
            end
            subgraph Output [“충남 ICT 융합 문화콘텐츠 센터” 기초기반 조성]
            O1(콘텐츠 역량 개발)
            O2(ICT 네트워킹)
            O3(지역경제 기여)
            end
            Subject --> Lab
            Lab --> Output
            
```

## ■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충남형 추진사례 소개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신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활용되는 이노베이션(혁신)을 위한 R&D 기법의 하나



### 오픈 이노베이션이 점차 중요해지는 이유

- 소비자나 고객들의 니즈 변화가 빨라지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들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짐
- 개발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R&D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음
- 벤처 캐피탈의 활성화 및 과학기술자들의 기업가 정신 확산
- 기업이 보유한 특허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더 큰 부가가치가 창출됨

## PROJECT BACKGROUND

# 기술사업화를 향한 한 걸음

ICT 융합 문화콘텐츠 Lab은 기술사업화의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우리는 ICT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고, 문화콘텐츠 관련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기술을 빌려오거나 혁신·개발 할 수도 있다.

그 어느 쪽이든 우리는 '기술'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기술사업화 과정을 통해 현실화 시키는 일이다.

**기술사업화**(technology commercialization)에 대한 소박한 정의는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구현되어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그리 간단치 않다. 사업화 과정에서 이론과 실제 간의 괴리가 존재하며, 기술 특성상 시장 실패가 빈번하다. 그래서 정부 개입, 제도 보완은 물론 전략적 차원의 연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의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 원인-결과 관계의 '불확실성을 감소 시키는 설계'과정으로서 복잡하고 험난한 과정을 거친다. 기술을 다루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출발하기에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경영학적 차원으로도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사업화는 미래 정책방향에서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과 융복합 산업 육성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ICT 융합 문화콘텐츠 Lab'은 우리 진흥원으로서 앞으로 점점 수요가 확대될 ICT와 문화콘텐츠 분야 기술사업화 시도를 위한 첫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사업화 성공확률**

기술사업화는 3,000분의 1 성공률이 나타내듯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다.

충남형 추진사례 소개

## ■ 문화기획단 랩(lab) 운영

- 사업기간 : 2016. 5. ~ 12. (8개월간)
- 목 적 : 문화기획인력 양성 및 사업 실행을 통한 원도심 내 문화
- 전문 인력 활동 축 마련
- 참여대상 : 전국예비문화기획자 20명 내외
- 지 원 금 : 4,300만원
  - ※ 지원조건 : Lab 평가점수 70점 이상 팀, 4건 이내 최대 1,500만원 차등 지급 예정
- 사업내용
  - 4개의 Lab\* (5인) 운영을 통한 전문 문화기획자 양성
  - 문화기획단 우수 Lab 프로그램 지원 및 사업 실행

## ■ 참고자료 목록

- 김정원(영국 스프레드아이), <협동조합 지자체-런던 램베스구>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공공혁신의 바람, 2015.
- 사회혁신연구소,  
<http://www.spreadi.org/blog/?author=5454dbbde4b0d93113835553>
- CIVIC SYSTEMS LAB, 『Designed to Scale ; Open Works research report』, 2015.
- 배성기/안창규,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혁신(협동조합도시 런던시 램베스구)』,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2016.
- 전성환, 『ICT융합콘텐츠개발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충남문화산업진흥원, 2016



---

## 지정토론

“청년연구자가 바라는 희망제작소의 역할”

---

-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



## 청년연구자가 바라는 희망제작소의 역할

한영섭<sup>1)</sup> | 내지갑연구소 소장<sup>2)</sup>

모든 시민이 연구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청년연구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작업이 필요하고 주장한다.

한국사회에서 청년연구자의 현실은 어떤가? 대학의 대학원생은 연구자인가 대학교수의 노예인가? 지금의 대학에서 대학원생은 아직 교수의 갑질을 받아내야 하는 존재인 듯하다. 또한 학벌·학위 중심의 연구문화 속에서 좋은 시민-연구자는 나오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성차별’, ‘나이주의’, ‘학위·학벌주의’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장벽을 그대로 나누고 좋은 연구자, 좋은 연구가 나오기는 어렵다.

희망제작소가 한국사회 청년연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함께 해볼 수 있는 작업을 제안해본다.

- 목 차 -

Q. 들어가기 : 발제문에 대한 고민

1. 현실 : 한국사회에서 좋은 연구자가 만들어 질 수 있는가?
2. 걸림돌 : 한국사회에서 좋은 연구자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
3. 바람 : 좋은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한 ‘희망제작소’의 역할 제언
4. 마무리

1) 한영섭 연구소장은 용접공, 배관공을 거쳐 대기업 노동자로 일 하다 사람들이 왜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죽는 지 궁금하여 다니던 회사를 때려 치우고, 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청년연대은행 토담을 함께 설립하고,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초대 이사장(센터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청년, 부채, 약탈적 금융, 대안금융·경제에 집중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활동가·연구자이다.

2) 내지갑연구소는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이하‘청지트’)의 부설기관으로 청년의 ‘좋은 삶’에 대한 대안적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 득보잡(?) 독립연구소이다. 청지트는 살림살이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청년들 돈 때문에 삶(꿈)을 포기하는 일 없이 현명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상담을 진행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연구소는 내 지갑을 넘어 모두의 지갑 혁명을 꿈 꾸고 있다.

## Q. 발제문에 대한 고민

### Q1 촛불혁명 이후 시민의식의 성장과 시민참여의 주요 흐름과 동향

- 거버넌스 패러다임 변화, 서울시청년정책네트워크 성과로 동의.
- 최근 지방선거, 청년정치인의 등장으로 사회변화의 마중물.
- 전국 사회혁신 교육연구실천 협업 네트워크 ‘청년연구자’의 연구 보장은?
- 사회혁신 ‘청년연구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이 있는가?
- 대학 內 혁신은 진행되고 있는가? 그 노력은?

### Q2 시민연구 플랫폼으로서 민간싱크탱크의 역할

- 시민의 필요에 민감한 건전한 지식 생태계 구성의 필요성에 동의.
- ‘민간 정책 협업 풀(Think Pool)’ 구성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사례가 있는가?

발제해주신 내용은 한국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과 플랫폼이다. 그러나 그 사업과 플랫폼은 모두 ‘사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본 토론문은 ‘사회혁신’, ‘시민연구 플랫폼’의 선결과제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특히 ‘청년’연구자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좋은 청년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한 ‘희망제작소’의 역할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 1. 현실 : 한국사회에서 좋은 청년연구자가 만들어 질 수 있는가?

사회변화, 혁신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슬로건도 ‘사람이 먼저다’, ‘사람중심 경제’이다. 희망제작소 정관 목적에도 ‘인간 중심의 대안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라는 문구가 있다. 사회를 변화시킬 좋은 연구는 당연히 좋은 연구자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좋은 연구자를 발굴, 육성하는 일은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다. 오늘 모인 사람들 중에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질문을 바꾸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좋은 연구자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인가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이 있을까? 노벨상 수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로서 존엄을 지키면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돈이 되는 연구가 아니라,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인가에 대한 물음이다.

### 1.1 '인분교수', '갑질교수' 대학원생은 교수의 노예인가? 동료연구자인가?

몇 해 전 대학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sup>3)</sup> 그 사건이 있던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최근에도 서울대 갑질 교수 사건이 터졌고, 해당교수는 정직 3개월이 되었다. 이에 대학원생들이 집단 자퇴서를 제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왜 대학교수가 대학원생에게 가해지는 가혹행위, 갑질, 성폭력은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가? 학점, 논문, 박사학위 등 권력관계에 놓여 있는 아주 오래되고 전형적인 한국사회적폐 아닌가?

최근 한 취업포털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학원생의 인권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구조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좋은 연구자가 탄생되고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겠는가? 대학원생은 교수의 노예, 심부름꾼인가? 협업하는 동료연구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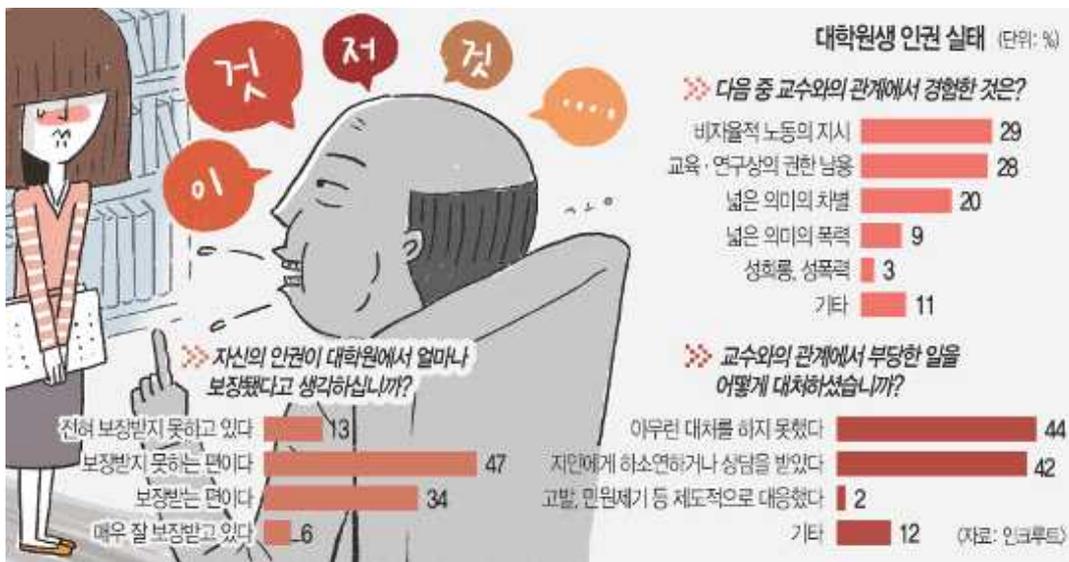


그림 1. 인크루트, 대학원생 인권보장 실태조사 결과, 2017.7.4 (국민일보, 기획기사)

대학 내 좋은 연구는 좋은 협업문화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대학원생을 학생이 아니라 선임연구자(교수)-후배연구자 또는 동료연구자로 바라봐야 좋은 연구자로 길러지지 않을까?

대우받고 존경받는 교수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동료(후배) 연구자를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존경은 '갑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3) 나무트리, 강남대 회화대자인학부 교수 가혹행위 사건, 2018

## 1.2 연구는 '박사'만 하는 건가요?

토론을 하고 있는 토론자(한영섭)은 박사도 아니고, 석사, 학사도 아니다. 다만 전문대를 졸업했을 뿐이다. 그간 청년부채, 금융관련 연구만 5편을 내놓았고, 꾸준히 기고와 강의등을 통해 연구를 고도화 시키고 있다. 또한 무식하게 독립연구소를 차려 홀로 운영해 가고 있다.<sup>4)</sup> 토론자 한영섭은 연구자일까?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할까?

한국사회에서 '한영섭'과 같은 사례는 아주 특수한 사례이다. 청년 독립연구자가 성장하기엔 사회의 문턱이 높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서 2018년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공고문의 일부를 캡처했다. 지원대상이 조교수 임용 5년 이내, 박사학위 취득 10년 이내 연구자이다. 일반인 연구자가 낄 자리는 없다.

- ①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전 본인이 지원 대상에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4쪽 참조)

구 분	내 용
연구업적	2013.1.1.~온라인 신청마감일 기준 연구업적 3편 이상
지원대상	조교수 임용 5년 이내 또는 박사학위 취득 10년 이내 연구자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신청 가능)

그림 2. 한국연구재단, 2018년도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신청요강

다행히 최근엔 서울시 청년허브, 광주시 청년센터, 수원시 청년바람지대 등 청년중간기관을 통해서 학위 없는 청년들도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나 지원의 예산은 적고 지속적이지 않아 청년연구자가 온전히 연구자로 살아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희망제작소에서도 '돌아온, 온갖문제 연구 프로젝트 -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프로젝트는 시민 누구나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장을 열어내고 있어 반갑다. 그러나 연구당 최대 300만원, 3개 연구로 너무, 너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4) 내지갑연구소는 2018년 7월 현재 후원자가 12명이 있다. 순수 민간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 2. 걸림돌 : 한국사회에서 좋은 연구자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

### 2.1 성차별

대학의 상아탑은 여전히 성차별적이다. 연구는 남성의 전유물인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6년 발표한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에서 2015년 졸업자 중 남성 65.9% 여성 34.1%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연구 중 휴학 경험 비율이 남성의 14.6%, 여성의 20%가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sup>5)</sup> 단순하게 비율적으로 여성 보다 남자 박사가 많다고 해서 좋은 연구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일 수 있다. 하지만 그간 한국사회 가부장제적인 사회 구조에서 여성의 진출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딘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분야를 가리지 않겠지만 연구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에는 성구별 없이 좋은 연구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방향이겠지만, 지금은 여성연구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고, 이것을 통해 균등한 기회가 모든 연구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내 만연해 있는 성희롱, 성폭력을 막아야 한다. 그 책임은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득권자에게 있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을 방조, 방관하는 이성-동료연구자의 책임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2.2 학위·학벌주의

세계적인 학술정보서비스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2018년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2017년 세계 상위 1%에 해당하는 연구자가 29명 인데 발표된 논문 1만 편당 배출 인원이 한국은 0.5명에 그쳤다. 상위 10개국 국가 평균 1.8명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논문 수로는 93명의 1% 우수연구자를 배출했어야 한다.<sup>6)</sup> 이렇게 양만 넘쳐나고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학의 연구 생태계를 결눈질로 살펴보면, ‘학위’를 따기 위한 연구, ‘밥벌이’를 위한 연구, ‘대학의 돈벌이’를 위한 연구가 아닌가. 이러한 환경에서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없다.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의 핵심은 한국사회의 ‘학위·학벌’ 중심주의에 원인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시민이 일상의 고민을 연구-논문으로 작성하여 발표하는 사례를 보았는가? 학위 없는 사람이 논문을 발표하는 사례를 보았는가? 권위적인 연구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좋은 연구, 좋은 연구자는 나올 수 없다. 희망제작소에서 말하는 시민이 연구자

---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 실태조사, 2016

6) ‘한국 연구논문만 양산 우수연구자 배출 성적은 바닥’, 한겨레, 2018.6.27

가 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 2.3 나이주의

경험과 나이가 들면 저절로 좋은 연구자가 되는가? 나이가 어리면 좋은 연구는 할 수 없는 건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발적이고, 싸가지 없지만, 좋은 연구는 나이와 무관하다. 한국사회에서 나이 ‘어린’ 좋은 연구자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국사회 ‘나이주의’라는 고정관념과 기득권이 권한과 기회를 나누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스티브잡스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스티브잡스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꽃을 피우지 못할 거라는 체념과 절망의 소리다. 이러한 외침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 다 물러가라’는 말이 아니다.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나이, 세대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좋은 청년연구자도 좋은 석학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 3. 바람 : 좋은 연구자를 육성하기 위한 ‘희망제작소’의 역할 제언

### 3.1 대학원생(신진연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힘을 내자.

- 대학원생 삶의 질 실태조사 하자.
- 교수와 대학원생(후배)연구자 협업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하자.
- 대학원생 소득보전 연구기본소득 실험하자.

### 3.2 좋은 연구자가 발굴 육성될 수 있도록 ‘시민-연구자 육성 아카데미’를 만들자.

- 시민-연구자 발굴·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위·학벌주의’ 연구문화를 깨고 누구나 연구자가 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자.
- 시민연구자 양성하고 네트워킹 하여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돕자.

### 3.3 청년연구자가 새롭고, 명랑하고, 도발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 ‘온갖 문제 연구 프로젝트’와 같은 연구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연구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내자.
- 시민-연구자 기본소득 실험하자.  
돈 때문에 연구자의 삶을 포기 하지 않도록 소득을 지원해주자.
- 시민·청년 전문연구자와 시민을 연결시켜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하자. 시민-연구자는 전문연구자로 성장을 시민은 고민과 재정을 매칭시켜 현장과 전문가 집단을 연결하자.

## 4. 마무리

토론자는 ‘모두 끼기’에 능숙하지 않지만 오늘은 ‘막’나가기로 했다. 앞서 한국사회가 청년 연구자를 대하고 있는 현실과 문화를 살펴보았다. 좋은 연구는 좋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오늘은 지면상 이야기를 못했지만 ‘좋은’ 연구라는 개념도 새롭게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한다. 내 지인은 피규어(Figure)<sup>7)</sup>를 참 좋아한다. 만약 지인이 ‘피규어가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연구를 한다면 이 연구는 좋은 연구일까? 쓸모없는 연구일까? 또다른 지인은 식물을 참 좋아한다. 만약 그 지인이 ‘반려식물이 인간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한다면 이 연구 또한 좋은 연구일까? 쓸모없는 연구일까?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길을 터주기 바란다.

---

7) Figure. Figurine을 줄인 표현이다. 가상의 인물을 특정한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어 놓은 것.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게임, 만화 등의 등장인물들을 플라스틱, 금속 등으로 제작해 놓은 모형, 조각상을 일컫는 말. 제작방법, 재질, 가동여부에 따라 구분 한다.



---

## 지정토론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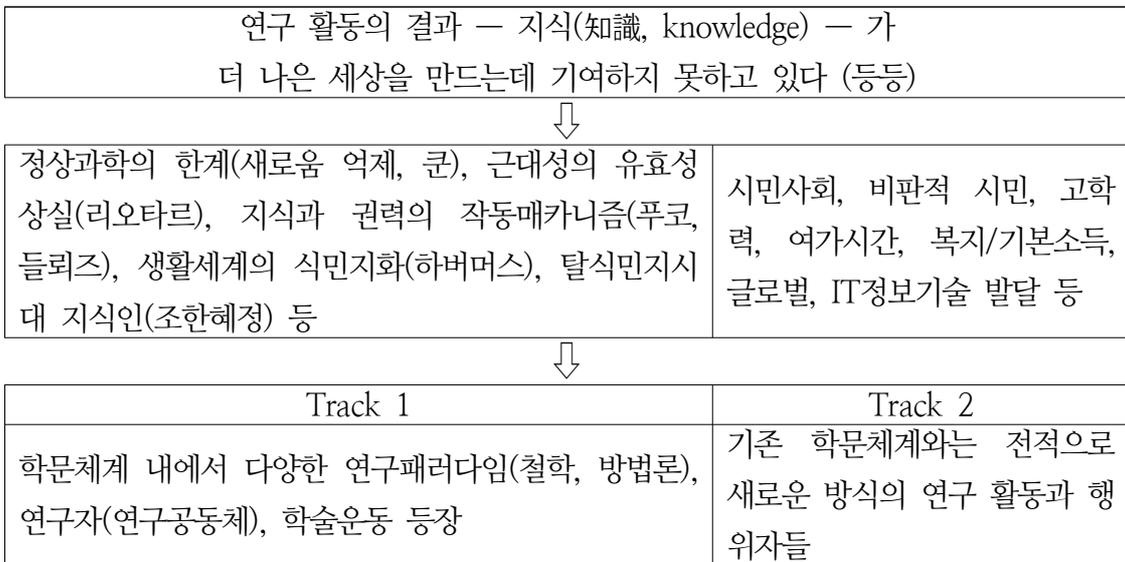
- 김소연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고파다 <들파> 대표



# “모든 시민이 연구자다”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김소연 |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고파다 <들파> 대표

## 1. “모든 시민은 연구자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분	주류 학계	Track 1	Track2
패러다임	실증주의, 경험주의	사회구성주의, 해석주의	해체/성찰, 실천주의
연구 목적	사회현상의 인과규명, 이론구축, 일반화	이해와 해석, 행위자 시각의 이해, 맥락화	문제해결, 실천, 행동의 변화
연구 접근	연역적, 설명, 예측	귀납적, 기술, 해석	실천적, 현장실험
	이론연구, 실험, 양적연구, 실증연구	현장/참여연구, 질적연구, 사례연구	적용, 실행연구, 리빙랩
연구 주체	과학적, 객관적	연구자(주도), 당사자/실천자(부분)	당사자, 실천연구자
지식	추상성, 일반성,	성찰성, 다양성	실천성, 혁신성

성격	지식-실천 분리	상향적, 의사소통적 지식	실천=지식, 집단지성
지식 축적	분과학문(disciplines),도 제식, 대학, 학회, 학술지	학제간(interdiscipline) 네트워크. 대학, 학회, 학술지, 대중서	초학제(transdisciplinary) , 제도권학계밖, 협치, 사회적경제, 대안운동

## 2. 현장의 시도들

사례	활동	시사점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마연팀'	-연구시존제(예:마을부엌연구1, 연구2) -협동연구, action-research -공동 출판, 기고 -연구=운동=정책	-시민활동가 성장, 공동학습 -성과 독식 금지 -시민연구자-독립연구자-제도권 연구자 균형
시민사회 현장연구자모임, 들고파다 <들파>	-시민사회단체 출신 연구자, 행 정가, 실천자들의 모임 -매월 워크숍 진행 -친목, 정보교류, 공동연구	-독립연구자들의 비빌 언덕 -동료만들기, 공동학습 -연구용역 공동수행
서울NPO센터 활력향연	-NPO 활동가 8명 연구지원(각 500만원, 6개월) -개인문제의식에서 출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	-연구계획서: 동기와 성장 -연구설계 멘토링 -연구결과 이카이빙, 확산(센터 활동과 연결)

※ 혁신연구(리빙랩), 정신장애인들의 당사자연구-자기를 구하는 법(봉천동 한울지역정신 건강센터, (<http://bemimor.com/detail.php?number=10390>), 주니버스(Zooniverse, <https://www.zooniverse.org/>))

## 3.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연구란 더 나은 세상에 기여하는 지식생산(문제정의/조사/실험/해석/분석/대안 선택 /적용 등등) 활동. 연구자는 지식생산 활동을 체계적으로 또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
- 어떤 목적으로 어떤 지식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① 국가권력과 시장논리에 강

제되거나 왜곡되지 않는 시민사회의 자율성 확대에 기여 ② 생활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세계의 대안성, 구체성을 담을 수 있는 지식 ③ 성찰적, 실천적, 개방적, 혁신적 연구방법론 ④ 생산된 지식의 공공성 확보

### 3.1 시민연구자-독립연구자-제도권연구자 협업 및 소통 생태계 구축

- 각 연구그룹의 특성과 전문성을 융합한 공동연구 진행
- 연구 결과의 공유: DB구축, 공동세미나 등
- 기존의 학술연구운동들과 결합하여 흐름 형성: 운동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중간기술운동(intermediate technology), 평생교육, 사회참여연구, 커뮤니티기반연구, 실행연구(action-research), 사회혁신연구, 리빙랩(Living Lab: 일상 생활의 실험실)

	시민연구자 직업이 아님	독립연구자 직업적 불안정성	제도권연구자 직업적 안정성
+	-현장 감수성 -문제 집중, 해결 열정 -다양성, 창의성 -생활세계의 구체성, 활용가능성 높음	-현장문제 발굴과 이해 -복합 학문 이해 -다양한 경험,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 형식논리 탈피 지향 -현장지향적 이론, 대항담론 지향	-지식 접근의 안정성 -연구기금확보 용이 -연구의 연속성, 장기진행 가능 -연구결과 축적, 공유: 담론화, 이론화 작업 -연구결과확산(사회적권 위, 정책결정 연결)
-	-정체성 문제 -단편성, 일회성 -지식접근 부재, 기존 지식 활용/이해 낮음 -연구기술 부족 -개인문제로 한정/지식의 사회화/종합화 이슈	-정체성 혼란 -연구기금확보 어려움 -지식 접근 불안정 -프로젝트 의존: 단기간, 연속성 부재 -1인 연구, 연구공동체 형성 문제 -연구결과 축적, 공유, 확산 문제	-현장문제 괴리 -학문업적집착, 이론 고정, 기존 프레임 답습 -학회기고, 평가시스템 -조직논리, 정치적 판단(정부출현기관)

### 3.2 시민연구자 & 독립연구자 지원의 관점에서

- 시민지식창출
  - 희망제작소, 새사연 등 현장연구, 시민연구 강조, BUT
  - 연구 관점과 연구방법론 개발: 실행연구(action research), 협동연구(예: 주니버스), 리빙랩, 당사자연구
  - 다양한 학습공동체와 훈련 프로그램 진행: 이슈, 연구방법, 정보사용, 연구윤리, 글 쓰기 등
  
- 시민지식창고
  - 모두에게 열린 지식: 데이터, 연구자료 등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무료 자료 접근. 예)사이허브(디지털 논문저장소, 지식해킹)
  - 생산된 지식의 축적과 공유: 예를 들면, 시민지식도서관, 시민지식학회(온라인학회), 웹학술지 발행, 시민지식컨퍼런스 등
  
- 시민지식 활동가 커뮤니티 조성
  - 독립연구자 네트워크, 무크지 <궁리> <http://gungli.net/>
  - 연구공유공간: 희망제작소
  - 시민사회단체 내 연구소 네트워크
  - 친목, 정보공유, 공동행동, 공동연구 등 수행
  
- 제도권 학계 및 학술지원 개선 운동
  - 학회 기고시 학위 규정, 심사비/게재비 이슈
  - 학술 DB의 공공자산화: 국비가 투자된 연구 성과의 무료 공개 법제화
  - 정부 출현, 중간지원조직 등의 개방연구 확대 및 개선 운동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 정부 학술용역 개선 운동

